

하느님의 왕국



[9]

씨를 뿌리는 일과 알곡을 거두는 일이 상반된 일이듯 천지의 운수를 따지면 낮을 들어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시어 타작마당을 정(淨)하게 하시는 ㄱ 말일의 추수 때가 ㄴ 당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신대로 따르는 사방 네 생물을 사신(四神)이라고 ㄷ 하는데 도는 사시(四時) 중, 추수기를 방위로 치면 서방이 되어 불가에서 정토(淨土)를 서방정토(西方淨土)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ㄹ 속죄로써 그 저주받은 땅이 정하여지는 회복이어서 서방정토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영생의 낙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열매를 바라고 ㄹ 심으셨던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았으나 동방 해 돋는 데서 ㅂ 무화과나무에 움이 나오고 남방 여름을 ㄷ 넘기면 그 결실을 거두시는 것이어서 심판 때에 미륵이 오셔서 열으시는 신천지입니다 ㄹ.

아미타 미륵은 이 땅에 장차 오실 ㅈ 메시아를 지칭하는 불언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미륵에 팔 듯, 세상에 오시는 당래불(當來佛)이 계시니 그에게 팔려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오.

인생을 피로 사서 ㅊ 하느님께 드리신 하느님의 어린양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하느님의 크고 두려운 재앙의 날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어 주께서 알곡을 모으시는 말일에는 그의 종들도 ㅋ 주의 추수를 돕는 일꾼들이오 ㄷ. 그들이 사역하는 일은 이 세상을 향하여 화해와 평화를 알리는 일이 아닙니다 ㅍ.

ㄱ.마13:30 눅3:17 ㄴ.마9:38-39, 13:39 막4:29 요4:35 ㄷ.겔1:20-21 계4:6 ㄹ.창3:17 ㅁ.요4:36 ㅂ.계7:2 ㅅ.마24:32 ㅇ.사65:17, 66:22 베후3:13 계21:1 ㅈ.계1:4, 4:8 ㅊ.계5:9 ㅋ.골2:29 계11:3 ㄴ.마9:37-38 ㅍ.마10:34

그들 안에 계시는 성신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ㄱ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며 ㄴ 세상을 책망하여서 ㄷ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짐승과 분쟁을 일으키며 ㄹ 싸우는 군대입니다 ㅁ.

상가의 유족이 배움을 입듯 애곡하는 자의 ㅂ 옷이 붉은 배옷입니다 ㄷ. 말일에 어린양의 종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즐거운 찬송과 듣기 좋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을 고하는 것이어서 이때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더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린양께서 당신의 재림에 앞서 보내시는 종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재앙으로 죽으면서도 하느님을 꾀망하게 됩니다 ㄹ.

그 일꾼들을 거부하는 곳이면 그 일꾼들은 발에 먼지까지 털어서 ㅈ 결별하는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모으실 알곡과 버리실 쭉정이가 자로 재뎌 나뉩니다 ㅊ.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그 책을 아무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ㅋ.

그때 하늘의 보좌에 둘러 있는 장로 중 하나가 이르기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獅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일곱 인을 떼시리라』 라고 ㄷ 하였습니다.

이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어 일곱 인을 떼시면서부터 이 세상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기요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이는 ㅎ 천자이십니다.

ㄱ.마10:19~20 ㄴ.골2:29~30 계11:6 ㄷ.요16:8 ㄹ.눅12:51~53 ㅁ.출12:41 시59:5 마10:22, 34~39 눅12:51 계11:7, 19:19 ㅂ.시35:13 겔9:4 마5:4 눅23:28 ㅅ.계11:3 ㅇ.계13:6, 16:9, 11, 21 ㅆ.마10:14 ㅊ.계11:2 ㅋ.계5:1~4 ㅌ.계5:5 ㅍ.요5:22 계19:11 ㅎ.계19:15

천자께서 일곱 인(印) 중 하나를 떼실 때에 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ㄱ 하였습니니다.

이 흰 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승리의 말입니다.

말 중에서 그 흰 말은 어린양을 모시고 그의 뜻을 따라 하느님의 병기가 되어 ㄴ 하느님을 시원케 하는 ㄷ 군마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하느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늦 활을 당기도다』 라고 ㄹ 하였듯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하느님의 군대여서 면류관을 받고 승리할 군대입니다.

세상과 대적하시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뒤를 따라 이기려는 자가 흰 말을 ㅁ 탄 하느님의 군대입니다. 흰 말의 이름은 그 말을 탄 자와 더불어 목숨을 다하여 하느님께 순종하는 충신(忠信)과 진실이어서 ㅂ 말일에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써 ㅅ 다시 예언하는 어린양의 종들이 백마를 탄 군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으로써 오직 살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지만 마치 무기를 든 살인자같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ㅇ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ㅈ 처형당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하느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통하게 죽은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고 ㅊ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보내신 그의 아들을 죽였으며 ㅋ 그 아드님께서 보내신 종들마저 ㅌ 대적하여 죽이는 세상입니다.

말 못하는 소도 그 주인을 알아보건만 인간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세상에 속한 편에서 ㅍ 보면 적이 어린양과 그의 군대입니다 ㅎ.

ㄱ.계6:1~2 ㄴ.사49:2 렘50:29 슥9:13 ㄷ.슥6:8 ㄹ.시18:34 ㅁ.계19:11 ㅂ.계 19:11 ㅅ.계1:9, 6:9 ㅇ.마10:22, 24:9 ㅆ.계11:9 ㅊ.마5:12, 21:35, 23:30 ~31 ㅋ.마21:38~39 ㅌ.마10:22, 23:34 ㅍ.요15:19 ㅎ.마24:9 계11:10

인간을 구하시려는 하느님을 인간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느님께서 시원해하시는 사건이 세상에는 재앙이요 ㄱ. 그 반대로 세상 모든 민족이 기뻐하는 사건은 하느님의 종들이 처형되는 사건입니다 ㄴ.

예수의 계시에 쓰인 복은 오직 성령을 받고 세상에 맞서 이기는 자가 ㄷ 받는 복입니다.

이기는 자가 아버지로부터 땅을 유업으로 ㄹ 받는 복이어서,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어린양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판결하여 죽였던 세상이 그 반대로 뒤집히는 세상이 됩니다.

세상의 권세를 쥔 짐승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에 전쟁을 일으켜서 증인들을 처형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만민이 그 전쟁의 승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도 ㅁ 그 기쁨은 극히 잠시입니다 ㅂ.

증인들이 죽어서 이 땅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나 ㅅ 그 어린양의 군대는 이미 태초부터 이기기로 ㅇ 정하여진 군대입니다.

추수 때는 주께서 곡식에 낫을 대시는 ㅈ 숙살(肅殺)의 기운이 도는 때입니다. 주께서 씨를 심으실 때와 반대로 서신으로 사명(司命)하시어 백마를 타고 이(利)한 낫을 휘두르며 심판하시는 주이시니 그의 아래 천지의 오행이 모두 재난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에^ㄷ 따라 백, 적, 흑, 청색이 사상의 색인데 그 생물 중 하나가 오라고 하여서 나타난 말들이 백색을 필두로, 적색, 흑색과 또 청색은 보좌 가운데 색이 합쳐져서 청황색 말입니다^ㄱ. 백마가 나오고 또 붉은 말이 나와 이 땅에 평화는 사라지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란이 일어나고^ㄷ 검은 말이 나와 큰 단위로 화폐를 내도 밀 한 되밖에는 구할 수 없는 기근과 지진이^ㄷ 일어나며 더욱 가공할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황색 말이 나와 사람들이 그대로 사망하는 급성 온역이^ㄷ 횡행합니다.

ㄱ. 슥6:8 ㄴ. 계11:10 ㄷ. 계2:7, 11, 17 ㄹ. 마5:5 계21:7 ㅁ. 계11:10 ㅂ. 사54:7~8 요16:33 계6:11 ㅅ. 단12:7 ㅇ. 창3:15 계17:14 ㅈ. 막4:29 계14:14~16 ㅊ. 계4:6 ㅋ. 슥6:1~8 계6:2~8 ㅌ. 겔38:21 마24:7 ㅍ. 마24:7 ㅎ. 눅21:11

이러한 검과 흉년과 사망은 세상에 닥칠 재난의 시작입니다^ㄱ. 그 뒤를 따르는 음부의 권세가 있어서^ㄴ 사탄에게서 받은 권세를 쥐고 사람 삼분의 일을 몰살할^ㄷ 땅의 짐승으로 말미암는 대재앙이 있습니다. 말들이 나온 후,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느님께 그들의 흘린 피를 신원하여주시기를 재촉하는 것은^ㄹ 이때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의 때입니다^ㅁ.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때도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로^ㅂ 예정되어 있고 죽임을 당할 성도의 수도^ㅅ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죽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주와 같이 그들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ㅇ 재림하실 어린양과 함께하여 이기려고 예정된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자의 수가 차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으시는^ㅈ 진노의 큰 날이^ㄷ 닥칩니다. 시편에 하느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주의 진노로 망한다고 하였듯이^ㅋ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언의 말씀이 온통 하느님의 진노 날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거에 말구유가 있던 자리에서 탄생하시어 인생의 속죄를 위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극형을 당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나 재림 때는 그 반대입니다. 이제 오시는 때는 만국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ㄷ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도록^ㄹ 하늘에서 위엄과^ㅎ 영광 중에 그의 만군(萬軍)을 거느리고^ㅈ 출현하시는 것이오.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우면 세상에 속한^ㅊ 만인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ㅋ 하리까.

ㄱ. 마24:7~8 ㄴ. 계6:8 ㄷ. 계9:14 ㄹ. 계6:9~11 ㅁ. 요16:33 ㅂ. 계11:7 ㅅ. 계 6:11 ㅇ. 계11:11~12 ㅈ. 시94:1 사1:24, 35:4, 59:18 렘50:15, 51:56 롬12:19 ㅊ. 시59:13, 사9:19, 34:2 단9:27 슥3:8 마24:21~22 계6:17 ㅋ. 시2:12 ㅌ. 마16:28 ㅍ. 계1:7 ㅎ. 사2:10, 21, 24:14 ㅈ. 골3:4 계14:1, 19:14 ㅊ. 요15:19 ㄱ. 계6:16

요한이 본 예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처절한 형상이 아니오. 입에서 나오는 날 선 검으로 만국을 치시는^ㄱ 백마 원수(元帥)입니다^ㄴ. 어린양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공의대로^ㄷ 세상이 응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어린양에 속하여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나 곧바로 닥치는 진노의 큰 날에는 반대로 세상에 속하여서^ㄹ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에게^ㅁ 피할 수 없는 화가 미칩니다. 여섯으로 이루어진 표를 일컬어 짐승이라는 이름의 수요 사람의 수라고 하셨습니다^ㅂ. 아벨을 죽인 가인이 받은 생존의 표는^ㅅ 여섯째 날에 인간에게 주신 권세와 같은 징표입니다. 하느님께서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ㅇ 하시며 주신 인간의 타고난 복이오. 아담의 장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땅에서 유리하며 살생으로 살아가는 들짐승(野獸)의 종류가 되어^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들에서 밭 대신 성을 쌓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ㄷ.

인생이 자신의 근본인 땅에 붙어서 농사를 지으며 하느님의 계명 안에서 살기를 하느님께서 명하셨는데 가인이 하느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계승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 비로소 약속강식을 하는 위무(威武)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ㄱ. 죄의 상전입니다. 죄가 있어서 문에 엎드리는 세상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 그 소산을 먹지 않고 하느님의 면전과 자신이 취하여져 나온 지면을 떠나ㄴ, 악한 자에게 짐을 지워서 수탈하여 먹는 자가 되려고 전쟁을 일삼는 삶이 되었고 그 권세가 땅을 정복하고ㄹ

ㄱ.계19:15 ㄴ.계19:14 ㄷ.계19:11 ㄹ.요8:23, 15:19, 17:14 ㅁ.계16:2 ㅂ.계 13:17~18 ㅅ.창4:15 ㅇ.창1:28 ㅈ.창3:1 ㅊ.요8:44 ㅊ.창4:14~15 ㅋ.창4:7 ㅌ.창4:14 ㅍ.창1:28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어서ㄱ 천하를 역천(逆天)의 상극(相剋)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역천자(逆天者)는 망합니다.

하느님만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大主宰)이십니다ㄴ. 하느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이시고 그 지으신 땅에 비를 내리시어서ㄷ 땅의 초목과 천하의 모든 생물을 생육하시는ㄹ 천지의 주재이십니다.

인간은 교만으로 망합니다. 인간이 땅을 정복하였다고 하여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오ㅁ. 인간이 받는 재앙은 하느님의 계명을 거슬러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ㅂ 것입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때, 그 인명 삼 분의 일이 년, 월, 일, 시에ㅅ 이르러 회리바람에ㅇ 쓸리듯 몰살하면서 그 파장과 더불어 오는 천재지변으로 세상 나라는 멸망합니다.

무기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무기로 망합니다ㅅ. 불, 연기, 유황으로ㅈ 인하여 삼시간에 인명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가 외계의 무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를 자기가 사용하여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인에게 생존의 표를 주시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라고ㅋ 하셨습니다. 이 벌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천벌이어서 그 수를 일곱 수인 칠 배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ㅌ 하셨습니다.

많은 성서 학자들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죽인 자의 피도 흘리게 된다는 뜻으로 의역하나 율법의 일점, 일 획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ㅍ. 성서의 원문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죽인 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말씀입니다.

ㄱ.창1:26~28 ㄴ.마11:25 ㄷ.계6:10 ㄹ.창2:5 ㅁ.마10:29 ㅂ.시24:1, 50:12 ㅅ.렘7:19, 25:7, 26:12~19 ㅈ.베후2:1 ㅊ.계9:13~16 ㅇ.렘23:19 단2:35, 7:2 ㅋ.계13:10 ㅌ.계9:18 ㅍ.창4:15 ㅑ.창9:6 ㅒ.마5:17~19

무죄한 자의 흘린 피는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ㄱ.

세상 나라는 살인하는 전쟁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주를 대적하여 참소하였던 자들의 아버가 거짓으로 인생을 죽인 들짐승입니다ㄴ.

나무가 가지를 치듯 아담이 낳은 가인과 하느님께서 주신 셋이 같은 아담의 아들이나 씨가 다르다고 하셨듯이ㄷ 예수께서 당신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살인자의 자손이라고ㄹ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예수께서 혈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ㅁ 선하신 하느님에게서 난 종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살인하고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을죄를 지은 이 못된 것을 차라리 죽여달라며, 죄를 지은 자신

을 미워하여서 가슴을 치며 ㅂ 통회(痛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느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가 호소한 것은 거꾸로 벌이 너무 무겁다는 불만이고 자기가 행한 것 같이 자기도 누가 죽이지 않을까 하는 ㅅ 불안을 호소하여서 육신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보장의 표를 받고 하느님의 면전을 떠나서 성을 쌓고 ㅈ 들짐승 같이 싸우며 사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수가 살생으로써 살아가듯, 가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표는 약육강식으로써 살아가는 짐승의 표입니다. 살인하는 전쟁으로써 세워지는 나라에 속한 자에게 부여되는 신분의 표입니다 ㅊ.
하느님의 나라에 예속한 백성이 아니오. 하느님을 떠나 자주 하여서 땅을 정복하는 인간의 권세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얹드리느니라』 라고 ㅋ 하셨듯이 죄를 다스리는 ㄱ 짐승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ㄱ.렘26:15 마27:24 계6:10 ㄴ.창3:1 요8:44 ㄷ.창4:25 ㄹ.요8:44 ㅁ.요8:39 ㅂ.눅18:13 ㅅ.창4:13 ㅇ.창4:14 ㅈ.창4:16~17 ㅊ.계13:17~18 ㅋ.창4:7

하느님이 아니고는 성을 쌓고 싸우며 살아가는 인간의 권세를 땅에서 멸할 자는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권세도 실상은 하느님께서 주셨기에 ㄱ 그 권세를 행세하는 것입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가인의 후손은 자기 조상을 따라 살인하였습니다 ㄱ. 살인자가 살인자를 낳은 살인자의 계통입니다 ㄴ.
그 라멕이 살인을 하고 말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로다』 라고 ㄷ 하였습니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ㄹ 아들을 둔 라멕이 자기에게 창상을 입힌 자를 죽였으니 무기로 싸운 것이오.
사람이 살인하면 그 죽은 자의 피가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 ㅁ 사람이 천벌을 받는 것인데 무력이 창과 날카로운 기계로 발전하였기 천벌도 칠 배에서 칠십칠 배로 높아졌고 그와 같이 살인하는 무기가 말세에는 년 월 일 시에 인류 삼 분의 일을 죽일 ㅂ 무력으로 발전하여 대량살상의 무서운 화를 자초하였습니다.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는 육으로 된 수이나 ㅅ 하느님의 수는 칠로 된 수입니다. 하느님의 신은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당신의 일을 다 이루시는 신이시어서 일곱 영이시오 ㅅ.
그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어서 칠이 한 단계 더하여져 하느님으로부터 칠십칠 대에 이르러 ㅈ 인간 나라를 벌하실 ㅊ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ㅋ. 신약의 복음서들이 메시아의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시조가 아담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ㅌ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언약 받았던 ㅍ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칠의 십사 대가 세 번이 되시어서 ㅎ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ㄱ.단2:37~38, 5:18 요19:11 ㄴ.창4:23 ㄷ.창4:24 ㄹ.창4:22 ㅁ.창9:6 렘26:15 겔18:13 마23:35, 27:24 ㅂ.계9:18 ㅅ.계13:17~18 ㅇ.계3:1, 5:6 ㅈ.눅3:23~38 ㅊ.단2:45 계19:15 ㅋ.고전15:47 ㅌ.눅3:38 ㅍ.창22:17~18, 24:60 ㅎ.마1:17

누가복음에서 칠이 이 단계인 칠십칠 대와 같이 마태복음에는 칠이 둘이어서 이(二) 칠의 수, 십사로도 ㄱ 상징되는 어린양이시니 곧 정월 십사 일 유월절 어린 양의 ㄴ 탄생입니다.
정월 십사 일 밤이 여호와와 밤이어서 ㄷ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인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 나온 밤이오.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 대신 하느님께서 주신 셋째 아들 셋은 하느님의 점지를^ㄱ 받아 태어났습니다.
어린양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ㄴ 아브라함의 뿌리입니다. 이 칠이신 어린양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인간에게는 일 칠이 있고 이 칠이 있어서 태어나는 삼 칠의 거룩한 수가 감추어져 있어서 점지 받은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아담의 삼 칠 대 후손으로 태어났기 하느님으로부터는 삼 칠을 넘긴 후에 선택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는 자입니다^ㄴ. 말로 하느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행실로 믿음을 드러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느님을 섬긴 것이 아니요, 천주를 모셔서 자신이 종이 되어 살았는데 주 하느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義)로 여기셨다고^ㄴ 하셨습니다.
백세가 되어서 적자(嫡子)를 얻은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으리오마는^ㅇ, 하느님께서 먼저 있는 서자는 쫓아내라 하시니^ㄴ 말씀대로 그 모자를 쫓아낸 난 후로 남은 적자에만 보람을 걸고 살던 아브라함은 그 적자마저 잡아 바치라고 하시는 하느님의 명을 그대로 따랐던 종이였습니다^ㄷ.
종가의 장손이어서 종족의 종주 노릇을 할 아브람을 하느님께서 그의 본토에서 나오도록 하시었기^ㄴ 그는 주에서 객이 되었고 셋의 아들 같은 계통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ㄷ 살았습니다.

ㄱ. 출12:6 민28:16 ㄴ. 마26:2 요1:29 고전5:7 ㄷ. 출12:42 ㄴ. 창4:25(점지는 직역임) ㄴ. 요8:58 ㄴ. 마7:18~20, 21:43 요8:39 ㄴ. 창15:6 롬4:3~24 약2:21~24 ㄴ. 창21:1~7 ㄴ. 창21:9~14 ㄴ. 창22:1~20 ㄴ. 창12:1, 15:7 ㄴ. 창4:26, 12:8, 13:4

상고 시대에 하느님께서 인생과 사귀시기 위해, 짐짓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현하신 모습이 한 사람이 아니요 삼수의 삼 인으로 이 아브람(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람(셈의 후손 중 고대 유프라테강 유역에 살았던 종족) 사람에게^ㄱ 나타내셨습니다^ㄴ.
인류 역사에, 사람으로서 하느님과 더불어 친구같이 사귀신^ㄷ 분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리시는 당신의 천벌을 놓고 아브라함의 의견을 좇아 결정을 연이어 반복하셨습니다^ㄷ.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어서 당신께서 도리어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계통이 아닌 다른 씨가^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입히신 옷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된 아담의 형상을 이어 받은^ㄴ 셋이요, 자신이 주가 되지 않고 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ㄴ 맥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처음 됄을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여자에게로 연합한 몸이 되었기^ㅇ 이제는 다시 하느님이 처음이 되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이 대이고 셋은 삼 대이며^ㄴ 그 줄기를 타고 예수께서 칠십칠 대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ㄴ 대로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맥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산 자』 는^ㄷ 남자로부터 뻗어 가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요, 여자로부터 생산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ㄴ.
아담이 여자에게로 연합한 몸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 더는 남자가 아님을 몸에 징표로 붙인 것이요, 그 후손이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신을 받아 잉태함으로써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ㄱ. 창11:26~28 신26:5 ㄴ. 창18:1 ㄷ. 대하20:7 사41:8 약2:23 ㄴ. 창18:22~33 ㄴ. 창4:25 ㄴ. 창5:1~3(창1:27, 2:7) ㄴ. 창4:26 ㄴ. 창3:20 ㄴ. 눅3:38 ㄴ. 창5:1~32, 창11:10~32 ㄴ. 창17:5~7, 22:17~18, 24:60 ㄴ. 창3:20 마22:32 ㄴ. 창3:15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ㄱ. 후손을 생산하면서 피는 여자가 흘리는 것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일컫는ㄴ 옛 뱀은 남자의 원수가 아니라 여자의 원수이고 여자는 그 산고를 겪어서 생산한 여자의 후손이 있어서 마귀의 머리는 상하고 맙니다.

성서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요, 남자면 죽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아내가 『아들의 양피(陽皮)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ㄷ 하여서 모세가 죽음을 모면하였습니다.

양피를 베어서 피를 낸 것이어서 모세가 남편이지만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가 되어서 피 흘리는 씨종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ㄴ 어린양의 여자를 지칭하시는 암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는 쪽이 아니라, 성신을 받고 희생의 피를 흘리는 계통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신을 받아들인 몸이 되어 꺾박을 받고ㄹ 어린양의 뒤를 따라 희생의 피를 흘리는ㄷ 계통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주가 되어 여자를 일컬어 자기의 몸이라고 하였듯이ㅇ 비록 아브라함의 혈손으로 태어난 모세라도 그 자신이 주이면 여전히 붉은 용인ㄱ 옛 뱀의 자손이오ㄷ.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고 또 남자라는 뜻이면서 흙같이 붉은색을 뜻하는 어휘입니다. 흙에서 취하여져 흙으로 돌아가는 몸입니다ㅋ.

나무가 가지를 치듯 남자가 남자를 뺏어내서ㅌ 태어난 아담의 장자는 노기를 발하여 안색이 변하였던 자였고ㅍ 이삭이 낳은 자라야 하느님의 씨라고 하셨어도 그 이삭이 낳은 그의 장자 에돔(붉다는 뜻)은 축복을 받은 아우에 분노하여서 야곱과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ㅎ.

ㄱ.창3:16 ㄴ.계12:9 ㄷ.창3:15 ㄹ.출4:25 ㅁ.계12:2 ㅂ.마5:11~12, 10:16, 24:9 ㄷ.계12:3, 13 ㅅ.계6:9~11, 20:4
ㅇ.창2:23 ㅈ.계12:3 ㅊ.요8:44 ㅋ.창3:19 ㅌ.창4:1(특남의 직역) ㅍ.창4:6 ㅎ.창25:22~23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하느님의 어린양을 따르는 그의 신부가ㄱ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신을 받아들여서 어린양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ㄴ 희생의 길을 걷는 인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부역조(換父易祖)하여야 환골탈태합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시집식구가 되듯 남자나 여자나 인생은 모두 여자가 되어서 성과 본이 아담으로 시작한 혈육의 아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바뀌어야ㄷ 새 생명으로 거듭나 영생(永生)합니다.

하느님은 영(신)이십니다ㄷ.

하느님의 신은 일곱 영이시오ㅁ. 하느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 지으신 일을 다하신ㅂ 신이시어서 일곱은 천지를 지으신 신을 뜻하고 어린양은 칠 수가 칠 수를 생산하신 하느님의 독생자이시니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상형으로 칠십칠 대로 탄생하신 하느님이십니다ㅅ.

조물주와 이 칠이신 중보(中保)의 하느님이ㅇ 계셔서 아담으로부터 삼 칠대로 태어난 아브람을 택하셔서 할례를 받게 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점지를 받는 자의 표상이ㄱ 되어 그의 씨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훗날 이 땅에 퍼질 아브라함의 씨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ㄷ.

인생의 참 연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ㅋ. 하느님의 독생 하신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비로소 인생이 잃었던 인생의 연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아드님께서 인생을 피로 사셔서 하느님께 드리셨기^ㄷ 인생은 하느님의 영을 받고 다시 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정의하여서 짐승에게서 연원을 찾는 사유가 동방까지 침투하여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말세라도 죽지 않고 그 말대를 넘기려면 인생의 연원을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ㄱ.마25:10 계21:9 ㄴ.마10:38, 16:24 ㄷ.마23:9 ㄹ.요4:24 ㅁ.계1:4, 4:5 ㅂ.창1:1~2:3 ㅅ.눅3:23~38 ㅇ.시110:1 사9:6 마22:45 요8:58, 14:6, 고전15:20~28 계5:1~14 ㅈ.창17:4, 22:17~18, 24:60 롬4:12 ㅊ.사54:1~5 ㅋ.마6:9 ㅌ.계5:9

짐승의 사상은 인생 본연의 사상이 아닙니다.

동방에서는 인생의 연원을 모두 하느님께 두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모든 전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보학(講學)이라고 하여서 족보를 매우 중히 여겼는데 어느 씨족의 족보인들 시조가 하느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제단의 제물이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신약만 아니라 구약성서 또한 많은 분량이 족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아의 장자가 셈이고 인종이 멸절한 홍수 후에 그 셈이 낳은 아들의 1 장손인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 하느님께 단을 쌓았던 벰엘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로 돌아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거할 당시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세 길손을 목격하였습니다^ㄴ.

아브라함이 그 세 나그네를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혔습니다. 몸을 굽혀도 조금 굽힌 인사가 아니요, 땅에다 굽혔으니^ㄷ 큰절입니다.

예배의 배 자가 절 배(拜)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나, 조선에서 초면의 사람들이 서로 상견례를 할 때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였듯이 손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절을 하면서 허락을 받아 먼저 물을 떠 올렸습니다^ㄹ. 그리고는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음식을 진설하여서^ㅁ 예를 하였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한 것 같이 아브라함은 소를 잡아 올린 것이요, 제사하기 위해 소나 양을 잡아 바치는 상형이 희(犧)자입니다. 하느님과 속세의 인생 사이에는 무죄하신 자의 희생이 있어서 비로소 교류되는 것입니다^ㅂ.

하느님께 예배하는 법이 그대로 사람이 사람을 시중하는 예법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내보이셨기 아브라함 또한 사람을 대하는 모양으로 대접하였습니다. 물 떠올리고 상을 차려 올리고는 저 자신은 손을 모아 나무 아래 모셔서는 중입니다.

ㄱ.창11:10~26 ㄴ.창18:1~2 ㄷ.창18:3 ㄹ.창 18:4 ㅁ.창18:6~8 ㅂ.히9:7

아브라함의 이 예법이 셈의 후손들이 뻗어 있는 1 동방에서 정화수를 떠올리고 큰절을 하며 음식을 진설하여서 상차림을 하는 제례로 신령에 예배하는 원형입니다.

제사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인생의 진짜 조상이신 신위를 모시는 의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곧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요,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어서 내 쪽이 먼저입니다. 아담이 하느님의 명을 좇아 아내와 한 몸을 이룬 후 여자를 일컬어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고쳐 불렀습니다^ㄴ. 여자의 후손이어야 산 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같은 인생인데, 자기보다도 나중이라고 하여서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느님의 성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세상에 태났으면 남자이고 여자이기 이전에 인생이고 그 인생의 상대는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반대입니다. 내 이쪽이 나중이 되어야 산 자로 거듭납니다.

조선 말에는 존칭이 따로 있고 그 존칭으로 아무개를 지칭할 때는 「아무개께서」 라고 합니다. 내 이쪽이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따르시는 것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나중 몸이 어린양의 신부입니다. 어린양께서 인생 안에 거하시고 인생은 그의 안에 거하여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상에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의와 사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이룩한 인간의 나라는 결국 참혹하게 허물어지고 말 뿐입니다.

ㄱ.창10:30 ㄴ.창3:20 ㄷ.겔28:13~16 ㄹ.마26:39~42 요5:19, 30, 6:38, 8:28, 12:49~50 14:10 ㅁ.마10:38, 16:24
요12:26 ㅂ.요6:56, 15:4 ㅅ.마7:21 눅3:8, 6:46 요8:33~39 약2:17~26 ㅇ.사8장, 60장 단2:44

진리로 지어진 천지는 그 진리대로 운행될 뿐이어서 세상의 운명은 이미 태초부터 정하여진 것이고, 그 정하여진, 하느님의 큰 날이, 코앞에 이르러야 말았습니다.

천지가 이미 그렇게 운명이 지어져서 창조되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요, 그 뜻이 이 세상,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 염소와 삼 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려서 하느님의 신께서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강림하셨고 그날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땅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어서,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제물이 연수도 삼 년이고 암소 하나와 서로 상대가 되는 둘과 둘이어서 크기도 삼 층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삼 수입니다.

천지창조의 처음부터 신께서 계시고 신의 아래 물이 있어서 빛이 탄생하시니, 성서는 석 삼으로 시작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말미암아 음에서 태어나는 셋째여서 양음이 아니요 음양이 태초에 계신 길 (道)이시고 생명이신, 연고입니다.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세 층이기 그 나라 백성이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이름의 수가 육백육십육이오.

이마에 하느님의 인을 맞는 자들의 이름의 수는 일곱 수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삼 단계의 몸입니다.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다음 단계로 어린양의 이름이 있어서, 일곱이라고 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아 거듭나는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ㄱ.시33:11 요16:11 베후2:3 계4:11 ㄴ.단11:35~36 ㄷ.사2:12, 13:6, 9, 34:8, 61:2 마24:21 ㄹ.마6:10 ㅁ.마12:28, 19:24, 21:31, 43, 26:29 ㅂ.창15:9~21 ㅅ.창1:2~3 ㅇ.요11:25, 14:6 ㅈ.계13:18 ㅊ.계14:1

인생이 하느님에게서 받는 것이 화가 아니면 복이고 복 중에서 좋은 복은 인생이 어린양의 배필이 되어 받는 성령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몸을, 받아 하느님과 같이 영생하는 몸으로 거듭 태어나는, 생생(生生)이 곧 생명나무에 이르는 도(道)입니다.

과거에는 꿈만 꾸어오던 복을 이제는 인생에 흠뻑 부어 주시는 것^ㄱ이요, 어린양께서 유월절에 포도주와 떡에 축복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나의 피와 살이라고 하셨습니다^ㄴ.

제물로 바친 술을 마시는 것을 일컬어 음복(飲福)한다고 합니다. 음복하는 제물의 크기로 따지면 비둘기보다 큰 제물이 양이나 염소이고 그보다 큰 송아지가 있습니다^ㄷ.

초복이 지나면 중복이 오고 중복이 지나면 말복이 오듯, 선지자의 때보다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꾼에게 내리셨던 이른 비의 복이 크고^ㄹ 이른 비보다는 추수기의 늦은 비가 큰 복이오스. 입을 크게 벌려서 천부와 천자, 양위이신 천상의 원군을 부르는^ㅁ 때가 말세입니다.

이른 때, 곧 씨를 뿌리던^ㅋ 때에 받았던 강신(降神)은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ㅌ, 늦은 때의 강신에 비하면 오히려 작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가 처음 내린 성신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예언한 선지자 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ㅍ.

그 글을 자세히 보면, 선지자 요엘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라고^ㅎ 예언하고 나서 그 이른 비 후에^ㅊ, 곧 하느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이 되는 말세에, 남녀 종들이 받는 하느님의 신과 그 때문에 베풀어지는 이적에 대한 예언입니다.

ㄱ. 눅11:13 요7:39 ㄴ. 요4:24 ㄷ. 요3:5 ㄹ. 창3:22 계22:14 ㅁ. 율2:23, 28 ㅂ. 마26:26~28 ㅅ. 창15:9~21 ㅇ. 마11:11 요2:10 ㅈ. 마20:16 율2:29 ㅊ. 율2:32 ㅋ. 요4:36 ㅌ. 율2:31 ㅍ. 행2:14~21 ㅎ. 율2:23 ㅊ. 율2:28~32 행2:16~21

요엘 같이 선지자 호세아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ㄱ 예언하였습니다. 비단, 선지자들의 글만이 아니요, 상제께서 보내시는 당신의 일꾼들에 대한 교훈과 예언을 자세히 보면 당신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역하는^ㄴ 일꾼들을 구별하시어서 큰 비중을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도성이 무너지고 천상의 도성이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지는^ㄷ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 극락왕생을 위하여 사십구 제라는 긴 치성을 하듯 사십구 일을 성서에서는 칠칠 절이라고^ㄹ 하고 사십구 년을 칠칠 년이라고^ㅁ 이르셨습니다. 일곱이 일곱으로 곱이 되는 날과 해입니다.

일곱이 곱이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과 그의 우편에 계신^ㄴ 어린양의 상형이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고^ㅅ 하셨듯 그에게는 모든 것이 일곱입니다. 어린양께서 강림하시어 짐승의 권세를 이기시니^ㅇ 하늘에서와같이 땅에도 다시는 애통해 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ㅈ 극락이 열립니다. 칠 칠 년을 지나서 맞는 해를 회년이라고 하였고^ㅊ 그 회년(禧年)이 백의 가운데가 됩니다.

선후천이 백이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천지의 운수가 뒤집히는 때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해를 해방의 명절로 지켰듯이 조선에서는 이 수를 백중 일이라고 하여서 일 년 중 노비가 짐을 벗는 명절로 지켰습니다.

인간의 죄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던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생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는데^ㅋ, 하느님께서 당신의 열매를 거두시어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시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니^ㅌ 사막조차 강이 생겨서^ㅍ 옥토가 되어 심은 대로 거두고

ㄱ. 호6:3 ㄴ. 마10:22~23, 19:30, 20:16, 24:9, 45~46 요21:22~23 계10:1~3, 11, 11:1~10 ㄷ. 마6:10 계21:2 ㄹ. 신16:0 ㅁ. 레25:8 ㅂ. 마22:44 ㅅ. 계5:6 ㅇ. 계 17:14 ㅈ. 계21:4 ㅊ. 레25:8~55 ㅋ. 창3:17~19 ㅌ. 마3:12 눅3:17 ㅍ. 사43:19

다시는 재해를 입지 않고 착취를 당하지 아니하여서 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던 인생이 ㄴ 비로소 해방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으로 시작된 ㄷ 성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에서와 같이 ㄹ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ㄴ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하느님과 상봉하여 ㅂ 지상의 사람이 하느님과 동거하는 ㅅ 새 세상이 됨으로써 ㅇ 유종의미를 거두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어린양께서 오셔서 당신의 처음 열매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오.

새 예루살렘, 곧 거룩한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도래(都來)가 바로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ㅈ 이 땅의 성도가 주문으로 기도하는 그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ㅊ 하시었기

신랑과 신부가 혼인한 형상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서 장차 이루어질 신천지(新天地)를 말씀하신 후 ㅋ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는 바 ㅌ,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양이신 성전이 ㅍ 있어서 그로부터 성덕이 만국을 비추고 하느님의 처음 열매, 곧 거룩하여진 만왕이요 만주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ㅎ 거룩한 성입니다.

서양으로부터 새 풍속이 들어오기 전에 극동의 생민이 성주(城主)를 모셨는데 단지에 처음 수확한 곡식을 넣고 이를 성주단지라고 하여서 생활용품과는 달리 구별하여 신성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의 주를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ㄱ.사65:21~23 ㄴ.마11:28 ㄷ.창1:2 ㄹ.마6:9 ㅁ.마6:10 ㅂ.사62:4 ㅅ.계 22:1~5 ㅇ.사65:17, 66:22 마19:28, 26:29 베후3:13 계21:1, 5 ㅈ.마6:10 ㅊ.계21:2 ㅋ.계21:1 ㅌ.사4:3, 14:32 ㅍ.계21:22 ㅎ.계21:24

성주나 성황을 서낭이라고도 불러서 인생이면 너도나도 섬겨야할 인생의 상대 쪽, 신랑(新郎)을 의미하였습니다.

서낭당에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는 장승을 쌍으로 세우듯이 신랑과 신부는 혼인한 새 낭군과 새 부인이라는 말이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면 남자는 그 한 쌍의 좌가 되고 여자는 우가 되어서 조선 말로 남편을 일컬어 서방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밝은 쪽으로 대면함이 ㄱ 성서의 취지여서 남편을 서방이라고 하는 것이어서 서낭은 부인의 상대 쪽 낭군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서에서 남자는 다스리는 자이고 ㄴ, 여자는 다스리는 자를 사모하는 자여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휘는 다스리는 ㄷ 주재자 곧 보좌에 앉으신 자를 의미하는 어휘인데, 천부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씨를 이 땅에 떨그시어 심으셨기 그 씨의 원수가 그의 발아래 복종하기 전까지는 천부께서 좌이시고 천자께서 우편에 계시니 ㄹ 천상의 주이시나 그 씨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좌우가 교차되어 천자께서 지상에서 좌가 되시고 인생이 우가 되어 인생이 하느님과 동거하는 때가 후천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는』 ㅁ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오. 하느님도 ㅂ, 인생도 버렸으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땅에 이루어질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ㅅ.

선천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던 사람의 나라이나 후천은 하느님의 어린양과 그의 처음 열매가 만민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서는 나중 난 자가 먼저 난 자의 주가 되는 내용을 거듭하시어 사람보다 나중 몸으로 탄생하신 인자(人子)를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ㄱ.창3:14, 32:30 신5:4 ㄴ.창3:16 계12:5 ㄷ.출15:18 시10:16, 45:6 겔20:33 계11:15 ㄹ.시110:1 마22:44 ㅁ.계21:3 ㅂ.마27:46 ㅅ.시118:22 마21:42 ㅇ.요5:39

아브라함에게 장자가 있었지만, 그 친부의 뜻이 좌절되고 이삭을 낳은 여주(女主)에 ㄱ 의하여 장자가 내 쫓긴 ㄴ 내용부터 시작하여, 이삭에게도 장자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뜻이 좌절되고 어머니에 의하여 작은아들이 거꾸로 주가 되는 복을 받았으며 ㄷ 야곱 또한 큰 손자와 작은 손자를 앞에 놓고 복을 줄 때 그들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오른손과 왼손을 고의로 교차시켜서 ㄹ 오른손을 작은아들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얹어 축복하고서 말하기를 작은 자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ㅁ 예언하였습니다.

그 여러 민족이 무엇이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축복이 모두 같은 내용이 반복된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 축복의 예언이 모두 아브라함의 혈손에게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列國)의 아비라고 ㅂ 하시며 언약하신 내용이 아브라함의 혈손에 대한 말씀이면 대를 이어가며 같은 축복이 반복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와 작은 아들 이삭이 같은 아브라함의 혈손인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라는 ㅅ 하느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에돔이 이삭에게서 난 장자인데도 하느님께서는 또다시 나중에 태어난 야곱만을 점지하시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같은 축복을 ㅇ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 대가 같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하느님의 언약대로, 하느님께서 점지하시어 태어난 ㅈ 자의 맥을 타고 하느님으로부터 칠십칠 대에 이르러,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친부가 되시고 ㅊ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친이 되시어서 독생(獨生)하신 하느님의 씨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ㅋ 그 한 알의 씨입니다 ㅌ.

ㄱ.창17:15(女主: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처에게 주신 이름의 뜻) ㄴ.창21:8~16 ㄷ.창27:1~29 ㄹ.창 48:17~18 ㅁ.창 48:19 ㅂ.창17:5 ㅅ.창21:12 ㅇ.창 28:13~15 ㅈ.창4:25~26 ㅊ.마1:18~20 ㅋ.창22:18, 26:4 갈3:16 ㅌ.요12:24

민족을 불문하고 인생이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영을 받게 된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ㄱ.

인생이 자손 대대로 기억하여야 할 하느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십니다 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그의 아내 사라라는 이름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列國)의 아버라는 뜻이오 ㄷ, 사라의 의미는 여주(女主)인데 이 역시 하느님께서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시며 ㄹ 주신 이름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이 낳은 씨가 아니라 이 사라가 낳은 씨여서 그의 이름이 여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ㅁ 사라는 이삭만을 생산하였고 하느님께서는 그 이삭만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ㅂ 이르고 그 이삭에게서 나는 씨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ㅅ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삼 대의 하느님이시오, 그 하느님의 삼 위 중 하느님의 어린양만이 하느님의 독생자이시기 ㅇ 때문입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표상이고 그의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그곳에 한 어린 양이 있어서 이삭 대신 그 어린 양이 도살되었기스 이삭과 하느님의 어린양은 같은 몸인 것을 상징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 대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으나 이삭만은 하느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아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이 백 세였고 사라가 구십 세이었던 때 하느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리라고 예언하시고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ㄱ.창2:8(원어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셨다는 의미임) 요12:24, 15:1 ㄴ.출 3:6, 15 ㄷ.창17:4~5 ㄹ.창17:15
 ㅁ.창16:15, 25:1 ㅂ.창22:2, 12, 16 ㅅ.창 21:12 롬9:6~8 ㅇ.요3:16, 18 ㅈ.창22:23 ㅊ.창17:19

아브라함도 이 예언을 듣고 믿을 수 없어 웃었고 ㄱ 젊어서도 잉태하지 못했던 노파가 이 예언을 듣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ㄴ 하느님께서 구십 세 노파의 태를 여셔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로 웃게 하셨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삭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동정녀에게서 ㄷ 탄생하실 세상 빛의 ㄹ 모형입니다.

창세 전에 수면에서 탄생하신 빛이 ㅁ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니,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어린양께서 수면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ㅂ 하신 그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언약이 이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고 ㅅ 그에게서 열국(列國)의 열왕(列王)이 나며 ㅇ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스 그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의 원수가 무엇이오. 여자의 원수입니다 ㅈ. 아브라함은 구십구 세에 할례를 받고 백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ㅋ. 하느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생산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ㅌ 상징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가리켜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ㅍ 하였듯이 하느님께서 열국의 어미라 하시고서 사라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 여주(女主)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장자를 낳은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ㅎ 하셨는데, 그 여주(女主)는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ㅊ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남이 그의 이복 아우를 희롱하였기, 사라가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ㅊ 요구를 하였기에 아브라함이 근심하되 깊이 근심하였다고 ㅋ 하셨습니다.

ㄱ.창17:17 ㄴ.창18:11~15 ㄷ.사7:14 ㄹ.요8:12, 9:5 ㅁ.창1:3 ㅂ.사42:1 마3:17 ㅅ.창22:17, 24:60 ㅇ.창17:6, 16 ㅈ.창22:17~18, 28:14 ㅊ.창3:15 ㅋ.창17:24 ㅌ.창3:15 ㅍ.창3:20 ㅎ.창16:9 ㅊ.창21:12 ㅊ.창21:10 ㅋ.창21:11

이역만리 타관에서 모녀를 내쫓는 것은 그들을 사지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건만, 사라의 이름이 여주입니다. 언약의 자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혈육의 계통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은 여자로부터 생산되는 여자의 후손이어서 주(主)께서 남자에 명하시 그 여주(女主)의 말을 듣되 다 들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흙에서 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은 자이나 ㄱ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어야 산 자입니다 ㄴ. 아담으로부터 뻗어가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과 원수가 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ㄷ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천에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나 ㄹ 남자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 ㅁ 여자는 그 지배를 받았으나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후천은 하느님의 신을 받는 여자가 생산한 남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ㅂ.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임이시고 인생은 땅에서 나 살아가는 자여서 하느님과 인생은 서로 상대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하느님의 계명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여자로 비유하신 것이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의 몸, 곧 하느님의 신을 주시어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인생으로 하여금 당신의 정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느님께서 『이삭에게서 난』 야곱과 또다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ㄱ.창3:20 마8:22 고전15:22 ㄴ.창3:20 마22:32 막12:27 눅20:38 ㄷ.창3:15, 17:16 마13:33 계12:1~2, 13 ㄹ.창1:27, 2:21~22 ㅁ.창3:16 ㅂ.계12:5 ㅅ. 요일4:8, 4:16 ㅇ.신30:6 사54:5 ㅈ.요14:9 ㅊ.창28:13~14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하신 언약은 이 땅에 편만 할 아담의 씨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 중에서 점지하시어 새 세상에서 동서남북으로 새로 퍼질 ㄱ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며 ㄴ 주신 여섯째 날의 복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에게서 뻗어난 그의 장자로부터 시작된 짐승의 나라가 멸망하고 여호와께서 남편이 되신 ㄷ 여자와 그의 후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고 ㄹ 새로 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곳의 토족에게 반복해서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성서에 두 편이나 담겨 있습니다 ㅁ.

사라의 용모가 아리따워서 그 토족이 사라를 탐내어 남편을 죽일 것이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알리면 자기 목숨이 『그대(사라)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라고 ㅂ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어미를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기는 죽고, 한배에서 태어난 같은 씨라고 하여야 자기 목숨이 여자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하였습니

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 행동을 이삭도 되풀이 하였습니

다. 아담이 자기의 배필을 보고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와 생겨났기 자기의 몸이라고 ㅇ 하였다가 그 반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ㅈ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아내를 일컬어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ㅊ 이름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결국 사람 중에 하느님의 여자로 점지받아서 하느님의 독생자를 생산할 자손임을 언약받은 것이어서 하느님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ㅋ.

ㄱ.사11:10~16, 54:1~3 ㄴ.창1:28 ㄷ.사54:5, 62:1~5 계21:9 ㄹ.마5:5 계21:7 ㅁ.창12:10~20, 20: 전체 ㅂ.창12:13 ㅅ.창26:6~7 ㅇ.창2:23 ㅈ.창2:24 ㅊ.창2:20 ㅋ.요8:56

이스라엘 민족이 그의 원수를 이긴다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ㄱ, 이삭에게서 다시 야곱에게 전수되었고 ㄴ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에게 ㄷ 전수되었으며 다시 유다에게서 이새로 ㄹ, 이새의 아들들 중, 다윗의 후손에게 ㅁ 전수되어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다윗의 자손에 정혼한 ㅂ 여자의 태에 하느님의 신이 임하시어서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남편이 되어서 생산한 씨가 아니오. 다윗의 자손과 정혼하여 단지 명분으로 다윗의 씨족이 된 여자에게 하느님의 신께서 친히 임하시어서 ㅅ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혈육의 자손이 아니어서 모든 것이 명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열국의 아버라는 이름을 주신 아브라함도 명분의 아버이고 이삭도 말씀만으로 독자일 뿐이며 야곱이 가진 장자도 명분상의 장자일 뿐입니다.

육신의 조상인 아담의 혈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미래 이루어질 여자의 후손을 생산할지 여자로 점지 받았습니 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 뱀과 원수가 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육신의 남편이 있는 여자가 생산한 남편의 자손이 아니오.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명분을 가진 여주의 후손입니다.

하느님의 독생 하신 그 한 알의 씨로 말미암아 민족의 경계를 넘어 만민이 하느님의 신을 받는 여호와와 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만민이 마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될 성서의 여자는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서 점지를 받는 모든 육체를 지칭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ㄱ.창17:19, 26:2~5 ㄴ.창27:27~29, 28:13~15 ㄷ.창49:8~10 ㄹ.사11:1, 10 ㅁ.역대상17:11~14 ㅂ.눅1:27 ㅅ.눅1:35 ㅇ.창25:33 ㅈ.창3:15 ㅊ.계12:9, 20:2 ㅋ.사54:1 ㅅ.창17:16 ㅆ.욥2:28 ㅎ.신10:16, 30:6 갈3:29 ㅊ.마13:33

예수께서 여자라고 부르셨던 주의 모친께서 생산하신 하느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 여자와 같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육체가 가득 퍼져서 하느님 나라의 헬 수 없이 많은 백성이 되고 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있어서 독생자와 같은 하느님의 아들들이 예정된 수만큼 거듭 태어나서 그 나라의 만왕이 됩니다.

여자와 그 여자께서 생산하신 아드님께서 이 땅에 진실로 이루어질 여자와 여자의 후손의 우두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어린양을 서방으로 맞아 하느님의 성령을 잉태한 여자가 여자의 후손을 생산함으로써 세상의 주권이 뒤집힐 후천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신랑이 오는 때가 성도가 부활하고 변화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산 자요 곧 부활하는 자입니다. 산 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서 왕 노릇할 하느님의 처음 열매입니다.

어린양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 때가 이르면 옛 뱀과 원수가 될 여자와 여자의 후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때에는 주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당신의 오른쪽으로, 그렇지 않은 종자를 왼쪽으로 나누시어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할 자가 나뉩니다.

오른쪽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고 독생하신 하느님의 배필이 되어 하느님을 섬기는 무리입니다.

할례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오. 하느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식입니다.

붉은 용이 원수가 되어서 핍박하는 여자여서 피를 흘리는 할례는 갓 태어난 적신이 받지 않고 칠 일을 지난 팔 일째에 받습니다.

ㄱ.요2:4, 19:26 ㄴ.계7:9 ㄷ.계17:14 ㄹ.요3:16 ㅁ.요19:26 계12:5 ㅂ.요6:39 ㅅ.창3:15, 20 ㅇ.마22:31~32 ㅈ.계14:4, 20:6 ㅊ.창3:15 ㅋ.마25:32~33 ㅅ.요1:18 ㅆ.마9:15, 25:6 계21:9 ㅎ.요7:22 ㅊ.창12:2 ㅊ.창17:12

일곱째의 거룩하신 빛으로 탄생하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선언하신 팔 복은 여섯째 날에 인간이 받은 복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여덟가지 복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의 나라라고 선언하신 복이요, 지금 세상에서 복 없는 자가 복 있는 자로 뒤집히는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주시어 살리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의미인 아담은 육신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나, 하느님께서 일곱째로 나타나신 빛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생기를 아담에 불어넣으시어 사람이 산^ㄷ 혼으로 거듭나게 하시었기, 하느님께서 그 산 자를 미래에 이루시려고 심으신 낙원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ㄹ 하신 하느님의 계명을 범하여서 하느님께서 주셨던 생명을 그날 잃고 죽은 자로 타락하였기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장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나라를 구경만 하고 말았습니다.

독생 하신 하느님께서^ㄹ 말씀하신 죽은 자와^ㅂ 산 자는^ㅅ 죽은 육신과 산 육신을 뜻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의 자손은 그 어린양의 신부가 생산하는 빛의 아들들이오^ㅇ, 그들이 산 자입니다.

천부로부터 영생을 유전(遺傳) 받은^ㅅ 열매여서 묵은 세력을 몰아내고 기업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ㅈ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미 죽은 자가 죽인 자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짐승의 나라가 가진 권력도 하느님께서 주신 권력이오^ㅋ, 그 짐승의 씨들이 그들 아버지^ㅌ 머리를 상하게^ㅍ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어둠 속에 야곱이 씨름한 상대는^ㅎ 이미 여섯째 날 인간에게 복을 주신 하느님이시었으나 새날이 밝아오면^ㅊ 이 땅의 권력은 뒤집히고 맙니다.

ㄱ.마12:8 ㄴ.마5:1~12 ㄷ.창2:7 ㄹ.창2:17 ㅁ.요1:18 ㅂ.마8:22 ㅅ.마22:32 ㅇ.눅16:8 ㅈ.마12:29 ㅊ.시82:8 사54:1~3, 57:13, 60:21, 65:9 마5:5 계5:10, 11:15 ㅋ.창4:15 단2:37 요19:11 ㅌ.요8:44 ㅍ.창3:15 ㅎ.창32:24 ㅊ.창32:26

모세조차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ㄱ 몸이나 새날이 밝아 야곱이 하느님을 대면하였어도 죽지 아니하는^ㄴ 몸으로 거듭났기 그가 받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오,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서 천하의 권세를 먼저 잡은 아담의 후손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김으로써^ㄷ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승리자이고^ㄹ 그들이 땅에서 열국을 다스릴 열왕(列王), 곧 만국을 다스릴 만왕(萬王)입니다^ㅁ.

한글판 신약성서에 있는 만주(萬主)요 만왕이라는^ㅂ 어휘와 구약성서의 만군(萬軍)이라는 어휘는 많은 군주(君主)라는 의미도 되고 또 많은 군대라는 의미도 되어서 같은 의미가 있는 어휘입니다.

하느님은 그 만군의 여호와이시니^ㅅ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뜻입니다. 구약성서의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는 하느님 중 하느님이십니다^ㅇ.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하는 여호와의 군대요^ㅈ 여호와의 장자들이^ㅊ 곧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ㅋ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성호라고 하신 여호와와는 태초에 하느님의 신께서 생산하신 당신의 아들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증언하시고 나서 나타내신^ㅌ 이름이니 만물을 창조하신 천부와 천자를 가리키신 성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ㅍ 하셨듯이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여자가 박해의 고통 속에 생산하는 하느님의 처음 열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생산하신 독생자가 아니라 천부로부터 한 다리 건너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하느님의 아들들입니다.

ㄱ. 출2:6, 10:28, 33:20 ㄴ. 창32:30 ㄷ. 계17:14 ㄹ. 창32:28 계7:4~8 ㅁ. 계5:10 ㅂ. 계1:5, 17:14 ㅅ. 삼상1:3 시89:8, 84:1 사1:24 ㅇ. 신10:17 시82:6, 136:2 단11:36 요10:35 ㅈ. 출7:4, 12:41 ㅊ. 출4:22 ㅋ. 창28:13 ㅌ. 창2:4 ㅍ. 계14:1

하느님의 유일하신 어린양께서 ㄱ 하느님과 인생 사이 다리가 되시어 ㄴ 생산하시는 하느님의 처음 열매입니다 ㄷ. 성서 속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삼 대는 하느님께서 장래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실 당신의 자손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ㄹ 말씀하신 계시 속의 여자가 때가 차서 생산하는 여자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입니다.

동방 아시아의 땅끝 조선에서 해산을 말할 때 성서와 똑같은 뜻으로 점지라는 ㅁ 말을 씁니다. 한글판 성서에 선택이나 부르심이라고 번역한 어휘입니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신의 점지로 해산하는 몸이라는 뜻이오, 부모와 자식 간의 이대가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석 삼이 되어 신으로 생산하는 자손을 염원하여서 삼신할머니의 점지라고 하는 것이니, 곧 여주(女主)의 자손을 염원하는 신앙입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금(禁) 줄을 쳐서 삼 칠 일동안 세상의 부정(不淨)과 격리하는 것은 새끼는 새끼나 남자가 주가 되어 남자에서 여자가 생긴 여섯째 날의 선천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곱째 날이 으뜸이 되어서 여자에게서 남자가 생산되는 ㅂ 후천의 새끼가 되기를 염원하여서 새끼를 바로 꼬지 않고 거꾸로 낳은 새끼를 금 줄이라고 합니다.

그 금 줄에 불빛을 상징하는 붉은 고추를 달아서 삼 칠로 태어나는 빛의 자손이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어서 기록하게 구별한 그 삼 칠 일을 넘겨서야 세상에 여자와 그 여자의 자손을 드러내는 것이며 술이 또한 불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술도 함께 매다는 것이고 더러 술가지도 함께 매다는 것은 그 불빛이 술술 일어나라고 하여서 술가지를 매다는 것입니다.

ㄱ. 요1:29 ㄴ. 딤펴전2:5 요일2:2 ㄷ. 계14:4 ㄹ. 계12:1~2 ㅁ. 창4:25 ㅂ. 계12:5

성경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시어서 만국을 영원히 비추실 ㄱ 세상의 빛을 ㄴ 증명하시는 ㄷ 말씀이오, 인생이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ㄹ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짐승의 피로써 인생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서에 율법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느님의 어린양의 피로써 속죄를 받는 구원의 모형일 뿐이오 ㅁ.

구원받는 자의 실체는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피로써 인생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느님께 바치셔서 ㅂ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려고 ㅅ 점지하시어서 ㅇ 이루시는 하느님 나라의 왕들이고 ㅈ 백성입니다 ㅊ.

아브라함이 받은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은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던 여섯째 날, 인간이 받았던 인류의 운명과 같은 내용이나 그 운명에 영원이라는 ㅋ 말씀이 더하여져 있는 후천의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복의 근원이 ㅌ 아담이 아니오, 하느님께서 장래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의 ㅍ 복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그가 복의 근원입니다.

장차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탄생하시어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ㅎ 누릴 영생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통으로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래 그 민족이 그 언약대로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하고 그 영토가 애굽(이집트)의 강에서 유브라테 강에 이르기 만큼 민족과 국토가 강대하였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일생 그 땅을 얻지 못하였으며 이삭 또한 같은 약속을 받았건만 그 자신이 그 땅을 얻지 못하였고 야곱이 역시 같습니다.

ㄱ. 계21:22~24, 22:1~5 ㄴ. 요1:9, 8:12, 9:5, 12:35~36 ㄷ. 요5:39 ㄹ. 요12:36 ㅁ. 히8:5 ㅂ. 계5:9 ㅅ. 요17:21 ㅇ. 요15:16 ㅈ. 계5:10, 20:4, 6 ㅊ. 계7:9, 18:4, 21:3 ㅋ. 창17:7, 13, 19 ㅋ. 창12:2 ㅌ. 마19:28 ㅎ. 창22:18 ㅍ. 창13:14~17, 창28:14 ㅊ. 창15:18 ㄷ. 창18:18 ㄹ. 창13:15 ㄴ. 창26:3 ㅊ. 창28:13

하느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업(業)을 삼게 해 주시겠다

는 하느님의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은 식솔을 이끌고 그의 본토를 떠났는데, 이역만리 길을 떠나 겨우 찾아간 땅은 이미 임자가 있는 타인의 소유지여서 아브라함은 그 땅 주인에게서 겨우 장지(葬地) 자리를 삼을 받을 돈 주고 산 것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을 야곱이 대를 이어 전수받아 하느님께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으나 야곱은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도리어 나그네가 되어서 이집트까지 가서 우거(寓居)하다가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일생을 야곱은 그 조부와 같이 나그네로 살다가 객지에서 죽었으며 죽고 나서야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그 조부와 아버지가 묻힌 곳에 함께 묻힐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 하였고 자기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 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하느님의 점지를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명하셨듯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느님밖에 없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하느님의 여자가 된 것이요, 여자가 된 징표로써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는 모든 자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ㄱ. 창15:7 ㄴ. 창23:16~18 ㄷ. 창28:13 ㄹ. 창47:9 ㅁ. 창50:13 ㅂ. 창47:9 ㅅ. 히11:9~10, 13~16 ㅇ. 창12:1 ㅈ. 창3:16 ㅊ. 계18:4, 21:3

이 세상의 삶은 어디까지나 과객(過客)입니다.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하느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창세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불과 사백 년 동안에 생육이 무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고 하느님의 기적으로 그 나라에서 구출되어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였어도 그들이 여전히 받들고 지켜야 할 계명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은 그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졌으면 더는 언약이랄 수가 없으나 여전히 하느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였고 하느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 판을 증거(證據)라고 일컬으셨으며 그 증거가 담겨 있는 궤를 증거 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셨습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장차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시실 하느님의 독생자를 증언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크고 강성하게 세웠던 다윗 왕이 그 언약 궤를 모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에 건축하기 시작한 자리에서, 그 다윗조차 야곱과 같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 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가버린 수많은 선대와 같이 자신을 과객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거하는 날을 빛 광(光)자, 그늘 음(陰)자를 써서 광음자라고 읊었던 이 백의 시와 같습니다.

다윗이 세운 그 왕국이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느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가라사대 『네 수한(壽限)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ㄱ. 요14:1~3 ㄴ. 히11:10,16, 13:14 계21:2 ㄷ. 마25:34 ㄹ. 출1:7 신10:22, 26:5 ㅁ. 출31:16 레24:8 ㅂ. 출34:28
ㅅ. 민10:33 ㅇ. 단2:44 요18:36~37 ㅈ. 요5:39, 15:26 ㅊ. 대상29:15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位)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은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땅에 세우시는 하느님의 성전이요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늘보다도 먼저 탄생하셨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여자의 아들이신 인자(人子)의 몸으로 세상에 탄생하시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하늘의 뜻을 이루시었고, 그 인자께서 점지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의 경계로 영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그 점지를 받은 자들이 땅에서 구속(救贖)을 받아 영생하는 고차원의 몸을 입습니다.

참 생명이 있으니 다시는 어둠이 없는 일곱째 날의 빛입니다.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 아니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신 생명의 빛이시니 곧 다윗의 후손에게서 탄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심으신 하느님의 씨입니다. 인생이 그에게서 임하는 진액을 받는 그의 여자가 되어 그 빛과 같은 빛의 아들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의 언약을 쓴 책입니다. 그 천지가 폐하기까지는 율법의 일 점 일 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성서만이 하느님의 언약이 아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두가 언약입니다.

ㄱ. 역대상17:11~14 ㄴ. 요2:21 계21:22 ㄷ. 계21:2~4 ㄹ. 창1:3 요17:5 ㅁ. 요17:4~4, 19:30 ㅂ. 요15:16 ㅅ. 요14:3
ㅇ. 계14:3 ㅈ. 요1:9, 8:12 ㅊ. 요4:14 ㅋ. 마5:18

열국의 아버라고 하신 아브라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표상이요, 그의 독자라고 부르신 이삭은 희생의 제물이 되어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하느님 독생자의 표상이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하느님의 처음 익은 열매의 표상이어서,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만군이 이 땅에 출현하시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인생과 세우신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이 일 점 일 획의 오차가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씨를 심으실 때는 동방에서 ㅅ 일하시어서 어지심만 가득하시어서 어린양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셨으나 ㅅ 다시 오시는 때는 당신께서 부르신 당신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때입니다. 이제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ㅅ 천지 성공의 때입니다. 이제 오시는 어린양은 신부의 서방으로 오시는 것이어서 서신(西神)이 사명(司命)하는 때입니다.

백마 원수는 ㅅ 조선에서도 사귀를 쫓는 주문에 부르던 이름이오. 이제는 여자의 원수를 물리치심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낮을 드사 가라지는 불에 던지시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때여서 백색도, 추상같은 공의도 사상 중 서방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도의가 인(仁)과 의(義)와 신(信)이오 ㅅ. 믿음의 토대 위에 이루는 덕목이 인과 의이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ㅅ.

공의와 사랑은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좌우명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동방에서 해가 뜨듯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신 한 알의 씨가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오시는 때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원군(元君)이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오. 큰 임금 곧 원군의 성입니다 ㅅ.

ㄱ.마5:16, 45, 48 ㄴ.창22:2, 12, 16 ㄷ.히9:26, 10:10 ㄹ.계14:4 ㅁ.계1:5, 5:10, 21:24 ㅂ.계10:7, 21:6 ㅅ.창2:8 ㅅ.사42:3 ㅅ.마12:20 ㅅ.계12:1~2 ㅅ.마5:10 ㅅ.계19:11~16 ㅅ.마23:23 ㅅ.눅11:42 ㅅ.마5:35

성서에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도 ㅅ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반복하여 부르시며 슬프게 예언하셨듯이 ㅅ 선지자 이사야는 이 아리엘을 마치 조선의 아리랑과 같이 반복하여 부르고 ㅅ 외국 음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그 아리엘이 하느님께 아리엘과 같이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ㅅ. 아리랑이 아리와 랑(랑)의 합성어이듯 아리엘도 아리와 엘이 합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일컬어 유대라고도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파 중 사자라고 불린 ㅅ 유다에서 나온 다윗의 성이어서 유다에서 비롯한 말이오.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부른 것은 아리가 사자라는 말이고 엘은 주 또는 임을 의미하여서 그 두 말이 합성된 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라는 뜻이오. 유다를 사자라고 한 것도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오른다고 하였듯이 ㅅ 이기는 것이어서 결국 이스라엘과 아리엘은 같은 뜻입니다.

그 아리엘이 하느님 앞에서 아리엘과 같이 되어 처참하게 포위되어 무너져서 땅의 티끌같이 낮아진다는 ㅅ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나, 성전의 제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제단이어서 예루살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제단은 제물을 도살하여서 희생의 피로 물든 단이기도 하고 제물을 번제(燔祭)로 드릴 때에는 화덕이 되기도 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ㅅ 희생의 피여서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의 피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도살된 제물이시나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듯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운데서 부활하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기 ㅅ 때문입니다.

ㄱ.사29:7 ㄴ.마23:37 ㄷ.사29:1 ㄹ.사29:2 ㅁ.창49:9 ㅂ.창49:9 ㅅ.사29:3~4 ㅅ.마26:28 ㅅ.요1:49, 12:13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어두운 때에 하느님께서 야곱을 치셨듯이 ㄱ 이 세상의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환난을 겪는 일이 있을 것을 ㄴ 예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운수는 영원한 복이나 그 운수를 받기 전에 겪는 고통은 잠시입니다 ㄷ. 어린양의 여인은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ㄹ. 이 경로가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ㅁ. 어린양께서 버림을 받으셨듯이 ㅂ 어린양을 따르는 성도들도 그들의 주와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온통 이 해산과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ㅅ 어휘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이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ㅇ. 성령을 받은 자는 더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마음에 어린양을 모신 그 주의 종속입니다 ㅈ. 그는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해산하기에 ㅊ 이릅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 따로 후손을 생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남자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이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ㅋ 자가 사람이어서 사람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후손을 생산하는 여자가 아니라 ㅌ 하느님의 신을 몸에 받고 산고를 치르는 그리스도의 여자입니다 ㅍ. 세상에 다시 오실 기약을 남기시고 가신 신랑을 영접할 여자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세상과 짝하면 여자는 여자라도 음녀(淫女)라고 ㅎ 계시하셨을 뿐입니다.

ㄱ. 창32:25 ㄴ. 요16:33 ㄷ. 요16:21 ㄹ. 사54:7~8 ㅁ. 계12:2 ㅂ. 마27:46 ㅅ. 사26:17, 54:1, 66:7~10 렘4:31 미4:10
요16:20~21 ㅇ. 요10:4 ㅈ. 요8:47, 15:19 요1서4:2 ㅊ. 계12:12 ㅋ. 창2:17 요5:24 롬5:17 히2:14 계20:6 ㅌ. 사54:1~5 ㅍ. 마25:1 고후11:2 계12:2 ㅎ. 약4:4 요1서2:15 계17:1~7, 19:2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에게 복을 주신 여섯째 날은 남자에게서 여자가 태어났으나 ㄱ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은 거꾸로 여자가 남자를 낳는 음양의 도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씨를 몸에 품은 여호와의 여자로서 그 몸에서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생산되는 것이어서 ㄴ 도를 음양이라고 합니다. 주와 주의 신자는 양과 음의 관계입니다 ㄷ.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자이고 여자는 신랑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ㄹ.

유태교 인과 이슬람교도는 육신에 할례를 받으나 하느님의 어린양을 마음에 모시는 자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 ㅁ 그의 여자가 된 자들입니다. 낮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신 ㅂ 빛께서 여섯째 밤을 넘기시고 일곱째로 나시어서 복을 받고 거룩하신 자가 되셨습니다. 여섯째 날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신으로 탄생하신 인자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어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 ㅅ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 것이어서, 신생아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일곱 번을 넘는 모슬렘의 전례와 같이 칠일을 넘기고 제 팔 일에 ㅇ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여자이지만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의 배필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ㅈ 어린양의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러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기는 ㅊ 팔음팔양입니다. 혼인 기약이 차서 어린양과 어린양의 배필이 하나를 이루시니 어린양의 신부가 남자를 생산합니다. 부활도 거듭나는 것이고 환골탈태하는 변화도 거듭나는 것이요.

예수의 증거와 하느님의 말씀을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ㄱ 말세에 어린양을 따르는 인생이 홀연히 변화하여 ㄷ 예수의 부활하신 영생의 몸과 같은 아들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ㄱ.창1:27, 2:22 ㄴ.계12:5 ㄷ.창2:23, 3:16 마9:15 계19:7, 9, 21:9 ㄹ.창3:16 ㅁ.신10:16 행7:51 롬2:29 ㅂ.창1:5 ㅅ.요7:39, 12:16, 23, 28, 41 ㅇ.창17:12, 21:4 ㅆ.마12:8 ㅊ.요3:5 계11:11 ㅋ.마24:9 눅21:12 요16:33 고후4:17 계1:9 ㅌ.고전15:40~54 베후3:12~13 요1서3:2, 4:17

스스로 중생한 자라고 하면서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능멸할 수 있다면 ㄱ 그는 거짓말을 ㄴ 하는 자입니다.

중생한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어린양의 구속이 허위가 됩니다.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거나 입으로 맹세하는 자도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눈이나 입이나 지체를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예수의 선언입니다 ㄷ.

혈육으로 태어나서 인생이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ㄹ 전연 다른 종자입니다.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구속될 날을 ㅁ 기다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와 똑같은 ㅂ 초자연의 몸을 입을 하느님의 첫 열매들이오. 하느님의 온전하신 ㅅ 형상을 입는 하느님의 씨들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속죄를 ㅇ 받는 것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는 구속이나 그같이 속죄를 받은 자 중에서 또다시 빼내심을 ㅈ 입어서 거룩한 몸이 되는 구속이 ㅊ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 어린양의 계명을 지켜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자들과 살아서 변화를 받는 자들은 영들을 지칭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은 살리시는 ㅋ 자이지 살아난 생명이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임하는 생기가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오 ㅌ.

육신이 죽어도 그 몸이 부활하여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ㅍ 새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르신 말씀은 인생이 법도가 없는 짐승같이 살지 말고 당신의 생기로 살아나게 된 생명을 ㅎ 지켜서, 자연을 초월하는 자유를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경계의 말씀이셨는데, 인생이 그 생명의 말씀을 배반하였습니다.

ㄱ.마5:21~22 ㄴ.요일2:4, 4:20 ㄷ.마5:27~30 ㄹ.계14:4 ㅁ.롬8:23 엡4:30 ㅂ.마10:25 롬8:29 고후3:18 요일3:2 ㅅ.마5:48 눅6:40 ㅇ.엡1:7 골1:14 계7:14 ㅆ.계17:14, 19:14 ㅈ.계14:3~4 ㅋ.요6:63 ㅌ.계11:11 ㅍ.요일11:25~26 ㅎ.창2:17

본시 사람에게 하느님의 생기가 임하셔서 거듭난 생명은 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기와 사람이 결합하여 태어난 산 혼이었듯이 ㄱ 어린양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마지막 날 살리시는 생명은 사람이 하느님의 성령과 결합하여 고차원의 몸으로 승화하여서 마음대로 보이지 않는 영도 되고 사람 눈에 보이는 육신도 될 수 있는 ㄴ 몸입니다.

하느님께서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나누심으로써 창조하셨듯, 율법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셔서 사람이 속된 것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신 말씀이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계하신 말씀과 같으나 그 율법이 하느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속물이어서 ㄷ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자는 없습니다 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ㅂ 명하신 제일 큰 계명이오.

글자 그대로 다하여 바치지 못하는 내 뜻, 내 마음, 내 힘이 있는 한, 누구도 율법의 범법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하느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은혜가 곧 영생에 이르는 생명나무입니다. 일곱째 날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죄인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어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느님의 언약입니다.

이는 인생 안에 하느님의 영을 주시어서 내가 나를 인식하던 자리에 거룩하신 신이 계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나 대신 상대가 있어서 그 상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 성령으로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ㄱ.창2:7(영과 혼은 다른 말임) ㄴ.요3:8 ㄷ.요8:23 ㄹ.롬3:19~20 ㅁ.마22:38 막12:28 ㅂ.신6:5, 10:12 ㅅ.창2:9 계22:19 ㅇ.요1:17 ㅈ.마5:17 롬13:10 ㅊ.요17:3 ㅋ.요10:38, 14:20, 15:4~9, 17:21~26 ㅌ.마16:24~25 요15:13 요일3:16

아래 땅에서 사는 인류는 인간으로서 먼저 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위하고 다음으로 자기네 쪽이 아닌 이웃을 위하는 사랑으로써 살아가도록 명하신 것이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기에 나와 다툼이 일어나며 내 집안이 내 집안을 위하기에 이웃 집과 원수를 맺고 민족이 제 민족을 위하기에 이웃 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며 인류가 인류를 위한다는 미혹에 속아 결국 인류가 경배할 우상을 만들어서 하느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기 편의 이윤과 권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한 집단의 몸으로 살다가 공휴일이 되면 전당에 찾아가서 사제의 축사와 찬양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는 단 한가지의 법식과 절차라도 성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남의 나라를 쳐서 정복하기를 목적으로 삼았던 옛 그리스와 로마에서 자기네끼리 결속을 위하여 신전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던 의식과 절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성령은 어디를 찾아가 뵙고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요, 진리의 신이 마음에 계시어서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하느님께서 찾으십니다.

마음 속에 계시야 할 그 거룩하신 신령은 계시지 아니한데, 물질로 십자가와 인물의 형상을 세우고 외형으로 거룩하게 꾸민 전당을 찾아가 경배한들 그 예배는 성전 밖 마당에서 참배하는 외식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단번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듯이 어린양의 계명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성령과 진리로 하느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선한 자는 하느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속에 하느님에게서 임하신 선한 것이 있어서 선행을 하여야 비로써 낫을 들어 하느님을 뵈올 수 있습니다.

ㄱ.마22:37~40 막12:30~31 ㄴ.계13:14 ㄷ.요4:21~24 ㄹ.요14:17 ㅁ.마12:44 요5:42 ㅂ.계11:1~2 ㅅ.히9:26 ㅇ.롬12:1 베전2:5 ㅈ.눅18:19 ㅊ.창4:7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형제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스스로 희생의 길을 택하는 자여서 도리어 형제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 형제의 발을 씻겨 줍니다.

하느님께서 열 가지 계명을 친히 새기셔서 주신 두 석판이 안치된 곳이 언약케입니다. 그 계명을 이루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십계명 중 사람이 하느님께 지켜야 계명이 넷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 여섯인 두 석판이 안치된 케입니다.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가 결합하여서 년, 월, 일, 시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만물이 존속하듯이 하느님의 계명은 십이고 그 언약 케를 모시고 행진하는 지파의 수는 십이가 됩니다.

형상이 있어서 거룩한 곳이 아니요. 그 계명이 새겨진 석판이 안치된 케가 있는 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만 하느님께서 인생을 만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느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인생에 보여주신 바는 하느님의 제일 큰 계명을 글자대로 행하신 그의 선한 행위입니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불경죄의 증거로 삼아서 하느님의 어린양을 체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일 뿐이요. 예수께서 당신이 바로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참 성전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통치하는 그의 성입니다.

ㄱ.마23:4 ㄴ.요13:14 ㄷ.출26:33 ㄹ.출30:6, 36 ㅁ.요1:1 ㅂ.요4:34, 5:30 ㅅ.
마22:38 ㅆ.계5:5, 22:16 ㅈ.요2:19 ㅊ.마27:63~68 ㅋ.계21:22 ㆁ.계3:12, 21:2

사람이 건설하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아니요. 하느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ㄱ 당신의 성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 도성(都城)이 도래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하신 후천입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의 어린양이 성전이요. 그 어린양과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하늘에서 임하옵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임금이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생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상제께서 오셔서 이 땅의 만국을 다스리실 거룩한 도성은 문이 사방으로 셋이어서 십이 사도의 기초로 이루어진 도성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하신 대명천지의 새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양과 음은 곧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어서 그 보좌에 계신 천부와 좌우가 되어 하나이신 자가 하느님의 어린양이시오.

ㄱ.역상 17:10~14 ㄴ.단2:34, 44 ㄷ.계21:3~4 ㄹ.계21:9 ㅁ.마1:21 ㅂ.눅1:68, 19:38 ㅅ.요1:49 ㅆ.사7:14 ㅈ.계21:14
ㅊ.계21:23 ㅋ.창1:27 ㆁ.마22:44, 26:64 ㆂ.요 10:30

그 어린양께서 재림하시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 그 어린양과 성도들이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보좌의 좌우가 됩니다.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과 인간이 거하는 지상이 통일되어서 하느님과 인생이 동거하는 신천지가 개벽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율법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는 농사와 관련을 맺는 음력 절기입니다. 이는 성서의 내용이 하느님의 씨 농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신이 인생에 임하시어서 온전하신 하느님과 같이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들이 생산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독생자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천하를 상속 받은 소유주가 되어 만국을 초자연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 땅의 소유자가 된 적이 없건만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지역이 만왕의 왕께서 탄생하실 지상 으뜸의 명당은 틀림없으나, 애굽의 강으로부터 유브라테 강까지 임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에서 객이 되어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시고 많은 왕의 많은 국민이 나겠다는 하느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언약하신 대로 당신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글자 그대로 빠짐없이 이루어질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ㄱ.계1:5 ㄴ.계3:21 ㄷ.계22:3~5 ㄹ.요15:1 ㅁ.마5:48 ㄷ.롬8:18~23 ㅂ.엡1:5 ㅅ.마5:5, 25:34 ㅈ.창35:11 ㅊ.창15:18
ㅊ.창15:6 ㅋ.계21:6

그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이 천자께서 좌정하시어 친히 천하의 정사를 잡으실 큰 성이 되어서 열국이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새 세상이 이루어지고 열국 중에서도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테 강까지 미치는 지경은 그 예루살렘의 주변이어서 더욱 명예로운 지경이 됩니다.

천자께서 이 세상에 다가올 천국을 말씀하실 때 땅을 유업으로 얻을 복을 말씀하셨듯이 한글판 성서에 업·기업·소유·상속·유업 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어휘는 (묵은 것을) 몰아내고 대대로 업을 삼는 터전의 의미가 있는 단어여서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언약은 당신의 씨와 그 씨가 물려받을 땅에 대한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지상의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고 환란의 때 어린양의 피로써 속죄를 받고 하느님을 밤낮 섬기던 자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이르는 그 나라입니다.

다가오는 나라는 위무로써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죄악이 사라지는 만큼 생명을 감금하고 죽이는 위무는 필요하지 않은 세상으로 바뀝니다.

다가오는 새 시대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통과하여서 그 도통의 능력을 가진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는 세대여서 그 시대의 배움은 도를 닦는 학문의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하느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됩니다.

서로 높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투쟁하는 이 세상과는 반대로 모든 이가 서로 상대를 위하여 섬기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그 행복(幸福)은 하느님의 선하신 사랑의 계명을 준행하는 도리에 달린 것을 사람마다 알기 때문입니다.

ㄱ.마5:35 ㄴ.사66:20 ㄷ.마4:17 ㄹ.마5:5, 21:38 ㅁ.시25:13, 37:9, 11, 82:8 ㅂ.사54:1~3, 57:13, 60:21, 65:9 ㄷ.단2:44, 7:22 ㅅ.마5:5 ㅈ.계5:10, 11:15 ㅊ.마21:43 ㅋ.히4:9 ㆁ.베전2:10 ㄴ.계21:3 ㄷ.사.계20:6 ㅅ.눅16:8 ㅈ.사11:9 ㆁ.렘8:9 ㅎ.호6:6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 당신의 독생자를 복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서 당신께서는 안식하심으로써 아들로 하여금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하느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ㄱ.

천지가 창조되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이 ㄴ 하느님께서 생산하신 빛으로 말미암아 정연하고 진실하며 밝음이 높이 계셔서 비추는 대명천지로 ㄷ 뒤바뀌어서, 하느님의 뜻이 결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오 ㄹ.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인생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ㅁ.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랑하시어서, 당신에게는 당신보다도 더 소중하신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ㅂ.

그 독생자는 인생을 위하여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 살이 찢기셔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인생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법을 무너뜨리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창세에 하느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생명을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지어 그 죄인의 몸을 가리시었던 ㅅ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지어주신 가죽옷은 장래에 있을 어린양의 희생을 모형으로 삼아서 인생을 가르치신 말씀이오.

하느님과 인생 사이에는 오직 하느님의 독생(獨生)하신 이 어린양의 ㅇ 희생이 있으셔서 인생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속죄를 받습니다 ㅈ.

법이 없으면 죄도 없으나 하느님께서 인생에 내리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일 점 일 획을 범하여도 죄는 죄여서 이 세상에 벌을 받지 않을 죄인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ㅊ.

ㄱ.창2:3 계21:6~7 ㄴ.창1:2 ㄷ.계22:5 ㄹ.마6:10 ㅁ.계14:6 ㅂ.마27:46 ㅅ.창3:21 ㅇ.사53:7 요1:36 계5:6~14
 ㅈ.사1:18 마26:28 ㅊ.요8:7 롬3:19~20 갈3:10~11

천지가 폐할지언정 율법의 일 점, 일 획이라도 폐할 수 없는 ㄱ 만고의 철칙이 하느님의 법이어서 그 일 점, 일 획을 무시하는 자는 ㄴ 천자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입니다.

설교는 글자대로 설을 가르치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신학 설을 듣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성서의 말씀을 해득합니다.

성서가 하느님의 비밀이 ㄷ 기록된 말씀이어도, 부모의 말을 고지 듣는 아이 같이 ㄹ 고지 믿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제께서 말씀과 계시로써 친히 성서를 보는 법과 비밀을 풀어주셨고 또 그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 ㅁ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구약만이 아니오, 예수께서도 역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 하셨습니다 ㅂ.

뜻을 감추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입니다. 성서는 학교에서 학문으로 배워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글이 아닙니다. 학문을 배운 유식한 자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ㅅ 봉합되어서 ㅇ 감추신 비밀의 말씀입니다.

말랐던 무화과나무에 움이 돋듯 ㅈ 그 감추었던 영원한 복음이 나타나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ㅊ 만물 중의 나중인 여자에게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인자(人子)이시오 ㅋ. 사람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사람과는 씨가 달라서 사람이라고 아니하시고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ㄷ 하셨습니다.

모친께서는 사람이시나 부친께서는 하느님이십니다.

세상에 무부지자(無父之子)로 태어난 자가 있겠소만, 하느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ㄷ 말씀하셨습니다.

ㄱ.마5:18 눅16:17 ㄴ.마5:19 ㄷ.마13:11 계10:7 ㄹ.마11:25 ㅁ.요14:266 ㅂ.마13:14 막4:13, 33~34 ㅅ.마11:25, 13:14~15, 23:24~26 ㅇ.단12:4 계10:4, 22:10 ㅈ.마24:32~34 ㅊ.요1서1:2 ㅋ.마9:6, 12:8 ㅌ.창3:15

하늘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만물 중에 가장 나중에 지어진 여자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지상의 모든 육신을 덮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영생의 새 차원이 열린 것이요.

인자께서 가신 길을 따라 인생이 인간의 차세대로 다시 태어나^ㄱ 영생하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 일곱째로 빛이 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가 나시매^ㄴ 그에게 복을 주시어서 기록하게 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여섯째 날에 복을 받아 땅을 정복하는 인간의 세대가^ㄷ 지나고 그 차세대가 열리는^ㄹ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인 후세의 나라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모친을 여자라고 호칭하셨는데^ㅁ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까지 따라온 모친과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ㅂ 하시어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어서 아드님을 잉태하셨으니 예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시고 여자는 예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와 같은 몸을 입을 아들들의^ㅅ 어머니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까지 따랐던 유일한 제자를 보시고 그 제자를 장차 태어날 아들들의 표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일찍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ㅇ.

우레는 어린양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봉합되었던^ㄷ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ㄹ 소리이고^ㅋ 아들이라는 신분은 그때가 이르면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 하는 자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는^ㅌ 환난의^ㅍ 때여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증언하던 일꾼들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홀연히 하느님의 첫 열매로 거듭나는 것이요.

ㄱ.요3:5 ㄴ.창1:31~2:3 ㄷ.마24:34, 45 막8:38 눅16:8 ㄹ.눅16:8 요12:36 ㅁ.요2:4 ㅂ.요19:26~27 ㅅ.마13:38, 17:26, 눅16:8, 롬8:19 ㅇ.막3:17 ㅈ.단12:4, 9 계10:4 ㅊ.계10:11 ㅋ.계10:3 ㅌ.마10:39, 눅14:26 ㅍ.요16:33

이것이 여자에게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생산되는^ㄱ 것이어서 만국을 다스릴 왕들이 당신과 같은 여자의 후손임을^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전하신^ㄷ 작은 책을 먹고서^ㄹ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사명(使命)을 받았으니, 요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렀다가^ㅁ 일할 일꾼들의 상징입니다.

인생이 주와 같은 영생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ㅂ 것은 주께서 인생의 죄를 대신 떠맡아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이요.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인생을 당신의 피로 속전(贖錢)을 치르시고 하느님께 바치신 것이어서^ㅅ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남을 일컬어서 구속(救贖)이라고^ㅇ 합니다.

내 이쪽이 선(先)이 되어 사망이 세상에 왔으나 메시아를 모셔서 내 이쪽이 그를 따르는 그의 나중 몸이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道)입니다^ㄷ.

성서에 상제께서 인생에 명하신 예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곧 당신의 결례(潔禮)와 음복(飲福)입니다. 서로서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 줌으로써 발을 씻기는 결례이고^ㄹ, 형제들이 서로 같은 식구가 되어서 어린양께서 주시는 그의 피와 살을 먹는 음복입니다^ㅋ.

침례(浸禮)는 본시 메시아로부터 난 예법이 아니라 침례 요한에게서 난 것이어서 ㄷ 두 가지요 그 요한의 침례까지 합하면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법이 모두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씻을 물과 음식을 진설(陳設)하여서 접대하였는데 ㄱ, 그 예절 그대로 하느님의 성자께서 인생의 종이 되시어 몸소 씻을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하느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주시는 어린양의 거룩한 생명의 떡과 음료를 ㅎ 인생에 베푸시었습니다.

ㄱ. 계12:5 ㄴ. 창3:15 ㄷ. 계1:1 ㄹ. 계10:8~10 ㅁ. 요3:5 ㅂ. 요21:23 ㅅ. 계5:9 ㅇ. 눅21:28 ㄷ. 롬8:23 ㅊ. 엡4:30 ㄱ. 계14:3, 4 ㄴ. 창3:24 ㄷ. 계22:14 ㄹ. 요13:14~15 ㅁ. 눅22:19 고전 11:23~26 ㅂ. 요1:26 ㅅ. 창18:1~8 ㅎ. 요4:14, 요6:35, 48~51

인생의 죄를 대신하시어 희생하신 하느님의 어린양이 계셔서, 죄로 말미암아 격리되었던 하느님과 인생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 ㄱ 서로 상대를 위하여 주고받아 하나가 됩니다.

발을 씻기는 의례와 함께 음복의 의례는 상제의 교훈에 대한 비유만이 아닙니다. 상제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ㄴ 하셨으며 음복 또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ㄷ 명하신 예식입니다.

거창한 절차를 밟는 예식이 아니라 물로 형제의 발을 씻어 주고 또 상을 차려서 큰절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예법입니다.

절하는 것은 너도나도 주를 모시는 종이어서 절하는 것이요.

교회는 주 이외에 세상 나라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부터 하였듯이, 유일하신 주의 이름으로 비록 두, 세 사람이 모였어도 그 자리에 주께서 참석하여 계시기에 ㄷ 참배(參拜)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축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귀는 ㅁ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인위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교파의 예식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 계신 주께 절하고 주께서 축복하신 ㅂ 음식을 음복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ㅅ 사람입니다.

다만, 동방에서 고인에게 하는 제사와 다른 것은, 죽은 자가 ㅇ 가는 곳을 북망(北邙)이라고 하여서 북쪽을 향하여 절을 하나 주께서는 그와 반대로 산 자의 ㅅ 그 생명의 빛이니 밝은 쪽을 향해 절하고 진설하는 음식 또한 산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일 뿐입니다.

ㄱ. 롬3:25 요1서2:2, 4:10 ㄴ. 요13:14~15 ㄷ. 눅22:19 ㄹ. 마18:20 ㅁ. 요일1:3 ㅂ. 마26:26, 막14:22 ㅅ. 마18:19 행2:42 ㅇ. 눅9:60 ㅈ. 마22:32 막12:27

예수께서 유월절에 행하신 세례와 음복은 당신이 곧 유월절의 어린양임을 가르쳐주시고 이를 지키라고 명하신 의례입니다.

음복은 어린양과 인생이 하나가 되는 ㄱ 의례입니다.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어린양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 오셔서 당신 몸을 인생에 주셨기에 ㄴ 인생이 그와 하나가 되는 의례입니다.

어린양과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서 인생이 하느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신 것과 같이 ㄷ 성자께서 인생 안에, 인생이 성자 안에 있어 성부와 성자와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ㄹ 그 한 「우리」 의 ㅁ 예식입니다.

유일하신 아버지를 ㅂ 가진 한 가족입니다 ㅅ. 어린양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주셨으니 그 생명의 떡을 함께 떼는 한 식구(食口)입니다.

조선인의 언습(言習)에 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가족을 일컬어 식구라고 표현 하듯, 함께 같은 떡을 떼는 자가 한 「우리」입니다.

같은 신위(神位)이신 아버지를 가진 형제가 되어서 ㉠ 같이 어린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양의 살을 먹는 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우리」는 네 것, 내 것이 없고 네 집, 내 집이 없습니다. 모든 이가 한 식구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나라고 하는 어휘가 없고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이시오. 죄 사함을 받는 속죄도 하느님과 나 사이의 속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 기도하는 것입니다.

ㄱ. 요17:22 ㄴ. 요6:53~57 ㄷ. 요1:18, 10:38, 14:10~11, 20 ㄹ. 요17:21 ㅁ. 요14:23 계3:20 ㅂ. 요8:41 ㅅ. 마12:50, 막3:35 ㅇ. 마6:9, 12:46~50, 23:8~9 ㅈ. 행2:44~46, 4:32~35 ㅊ. 마6:9 ㅋ. 마6:12

너와 나, 모든 이가 서로 발밑에 구부러서 씻어주는 자입니다 ㄱ.

형제 중에 누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요, 그 형제의 잘못을 나의 잘못과 같이 여겨서 그를 찾아가 은밀히 권면하고 ㄴ 그를 용서하는 자만 ㄷ 있어서 「우리」는 깨끗하여집니다.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인생을 섬기는 자가 되시어서 ㄹ 인생의 더러움을 씻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서로 종이 되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는 종자입니다.

어린양의 피를 마시고 어린양의 살을 먹어서 나 자신의 피와 살이 되어서,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 유일하신 목자의 발자취를 그대로 좇는 행위가 인생이 하느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한 시루에서 나온 제사 떡을 모두 같이 떼듯이 유월절 어린양을 먹고 양이 되어 어린양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양을 좇는 길이 ㅁ 곧 하느님의 성산에 있는 생명나무에 ㅂ 이르는 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ㅅ.

마음도, 뜻도, 힘도, 목숨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아버지의 뜻만을 좇아 ㉠ 인류 역사에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형틀에 못으로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잠잠히 ㅈ 순종하신 양입니다.

어린양께서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뿐이었습니다 ㅊ.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께 어찌하여 자신을 위하여 항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고 의문 하였고 ㉡ 예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ㅅ.

하느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ㅈ. 어린양의 양식은 ㅎ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 진리를 행사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진리를 일 점 일 획도 다르지 않게 실행하신 하느님의 어린양이시어서 요한은 그를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ㅊ 증언하였습니다.

ㄱ. 요13:14 ㄴ. 갈6:1 히3:13 ㄷ. 눅17:3~4 ㄹ. 마20:28 ㅁ. 마10:38, 16:24 ㅂ. 계2:7, 22:14 ㅅ. 마4:8~10 ㅇ. 마26:39, 42 ㅈ. 사53:7 ㅊ. 요14:31 ㅋ. 마27:11~14 ㅌ. 요18:37 ㅍ. 요17:17 ㅎ. 요4:34 ㅊ. 요1:1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공경하여 하느님께 음식 상을 차려 올려서 인생으로서 하느님을 모시는 제사의 표본이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인생을 사랑하시어서 생명의 떡을 ㄱ 내리셨으니 하느님과 인생 사이엔 오로지 양식이 있을 뿐이요.

하느님께서 제사로 흠향하시는 음식이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이고 그 사람의 음식이 하느님의 음식입니다.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니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린양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명절에 먼저 신위께서 흠향(歆饗)하신 후 후손들이 음복한다고 하여 그 제사를 일컬어 선후를 의미하는 차례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흠향하신 제물을 사람이 먹는 것이오, 그 제물이 곧 인생의 죄를 대속(代贖)하시려고 하느님께 바쳐진 유월절의 어린양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 인생에는 영생하게 하는 복이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받는 복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생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육신이 되시어 희생하셨고 하느님께서 그 희생을 열납(悅納) 하심으로써 그 희생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어서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술과 떡은 죄를 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인생에 임하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으로 나타내신 하느님을 위해 떡을 만들어도 곡식 가루 세 스아로 떡을 했고, 만든 떡을 먹으려고 떡을 때는 중동에서는 떡에 손을 대어도 손의 세가락으로 떡을 땁니다.

극동의 조선 또한 사람이 음식을 드는 것을 수저를 든다고 말하여서 그들 같이 세가락으로 먹습니다. 손가락과 젓가락, 세가락입니다.

중동에서 엄지 한가락과 검지와 장지를 붙인 두가락으로 떡을 떼듯 손가락은 한가락이고 젓가락은 두가락입니다.

ㄱ.요6:35, 48 요1서1:1 ㄴ.요17:22 ㄷ.창22:18 ㄹ.요6:63 ㅁ.계5:6 ㅂ.창18:6

손가락은 숫가락을 표준어로 정한 것이고 젓가락은 젓가락을 표준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어서, 양과 음을 의미하고 세가락의 그 셋은 양과 음이 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사람은 성(聖)과 속(俗)으로 천양지차여서 인생이 하느님께 접근할 수 없으나 어린양을 통하여 하느님과 인생이 하나가 되는 때가 임합니다.

하느님과 인생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느님과 인생 사이에 전대미문의 거룩한 생명이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신을 사람에게 주시니, 그 신을 받은 몸으로부터 새 차원의 생명이 태어납니다.

어린양께서 하느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시듯, 그같이 하느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아들들의 세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믿어야 하는 대상은 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은 약(約)입니다. 먹기만 하면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도 살아나는 약입니다.

어린양의 피는 이 같은 언약의 피입니다. 혈식(血食)하면 도통하여서 사람이 신선으로 거듭나 불로장생하는 신단(神丹)입니다.

인류 역사에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를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 한마디로써 다시 살리신 자가 누구시오.

무덤 속에서 듣지도 못하는 시체에 『나오라』 라고 명하신 그 한마디가 그대로 효능을 발휘하여 시체가 살아나 제 발로 걸어 나왔으니, 그 말씀이 무엇이기에 수목과 폭풍도 순종하고 시체까지 복종한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네들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의 언약이 바로 『마지막에 살리리라』 라고^ㄱ 하신 언약입니다. 시체가 말씀대로 살아나듯 그렇게 살리시는 언약입니다.

ㄱ. 출19:24, 33:20 ㄴ. 출31:13 계20:6 ㄷ. 마26:24 ㄹ. 요10:34~35 ㅁ. 눅24:39 요3:6~8 ㅂ. 눅16:8 ㅅ. 요11:25~26
ㅇ. 마26:28 막14:24 ㅈ. 요11:43~44 ㅊ. 마21:20~21 ㅋ. 막4:39 ㅌ. 창1:1, 1:26 요1:2~3 ㅍ. 요6:40, 44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ㄱ 영생의 언약입니다.

율법에 하느님께 올리는 제물은 거룩한 것이요, 거룩하여도 지극히 거룩하여^ㄴ 제사장이 아니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ㄷ.

율법의 제례에서 그 핵심의 요체가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그 제단을 불게 적시는 희생의 피입니다^ㄹ.

그 피가 얼마나 성결하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허물과 죄에 대하여 속죄하는 것이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자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피를 흘리시어 만인의 죄를 대속(代贖)하신^ㅁ 하느님의 어린양을 모형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났다가 죽고 마는 삶이어서 인간의 시조를 위시하여 세상에서 일컫는 못 성현도 악인들과 같이 임종하였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물 앞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고^ㅂ 하는 어둠이나 유독 인간만이 하느님을 찾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만으로는 천지 만물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상제께서 자연을 초월하신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자연을 초월하신 생명의 빛이 있으셔서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ㅅ 피동이 되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땅이 있게 된 것은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하늘이 있게 된 것은 빛이 있으시기^ㅇ 때문입니다. 그 빛을 일컬어 말씀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道)라고도 하는바, 그를 생산하신 신과 그 빛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네들이십니다^ㅈ.

태초에 계신 그 빛이 그보다도 크신^ㅊ 하느님의 신과 함께하시어서^ㅋ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ㄱ. 요11:26 ㄴ. 레14:13 ㄷ. 민18:9 ㄹ. 레5:9 ㅁ. 마20:28 막10:45 ㅂ. 마4:16 롬5:12~14 계20:6 ㅅ. 요1:3 ㅇ. 창1:2~12 요1:4~5, 3:19 ㅈ. 창1:1~3, 26 요1:1 ㅊ. 요10:29, 14:28 ㅋ. 요1:2~3

예로부터 사람이 도를 닦아 도통하면 자연을 초월하는 능력을^ㄱ 가진다고 믿어 왔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 같이 만들어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여 입에 거것이 없고 흠이 없는^ㄴ 온전한^ㄷ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있으니 임금 군, 아들 자, 그대로 도통 군자요 도덕군자(道德君子)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어린 양과 같은 임금이 되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 할 천추(千秋)의^ㄹ 임금들이고 아들들입니다^ㅁ.

공자는 덕(德)을 정의하면서 덕 자 앞에 밝을 명(明) 자를 두 번 붙여 명명 덕(明明德)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양께서 빛이시니 인생도 그와 같은 빛이 되는 것이^ㅂ 덕입니다.

어린양의 마음속에 성도가 있고 성도의 마음속에 어린양께서 계셔서 어린양을 따르는 행위가 덕입니다.

행실은 마음의 자취입니다. 어린양의 피를 혈식하여 어린양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몸이 하나라고 하는 그 일체(一體)가 아닙니다. 어린양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심(一心)입니다.

도덕군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일심입니다.

일 년 삼백육십 일 중 유독 여호와와 밤이라고 사 하신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오. 덕(德) 자가 행위를 의미하는 중인(重人) 변에 이(二) 칠(七)이신 십사(十四), 곧 정월 십사 일인 유월절 어린양과 일심(一心)이라는 뜻으로 이루어진 뜻글입니다.

어린양의 계시에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군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오 해석하여 주신 것과 같습니다.

ㄱ.마17:20 요14:10~14, 15:7 ㄴ.계14:5 ㄷ.마5:48, 11:11 ㄹ.계20:4, 6 ㅁ.마5:45, 13:38 눅16:8 롬8:19 ㅂ.마5:14
ㅅ.출12:42 ㅇ.계19:8

사람의 역량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나 ㄱ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통과하여 다시는 사망이 그들에게 권세가 되지 못하는 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느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ㄷ 그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ㄹ.

야곱이 자기 환도 뼈가 위골 되는 고통의 고개를 넘어 날이 새기까지 하느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은 복을 달라는 것이었고 ㅂ 그 인내에 사 하느님께서 지셨고 그래서 얻어진 이름입니다 ㅇ.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라고 사 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는 법인데 ㄷ, 마치 하느님께서 돌격하는 ㅋ 적과 같이 야곱을 치셨던 그 고통의 밤을 통과하여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면 ㅌ 그곳이 하느님과 대면하여도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는 경계임을 성서는 야곱의 씨름을 비유로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거하던 아담을 하느님께서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죄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룬들과 두루 도는 화염 검(火焰劍)을 두어서 지키도록 ㅍ 하신 길어어서 그 거룩한 경계에 들어서려는 야곱을 치신 것이오.

야곱의 요구도 복이고 하느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도 복에 관한 언약입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인간의 권세도 ㅎ 하느님께서 주신 복이나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복은 그 인간의 권세를 물리쳐서 땅을 차지하고 만민이 섬기며 열국이 복종하는 ㅊ 복이어서 인류가 타고난 복보다 더 우월한 종류가 되는 복입니다.

ㄱ.창3:23~24 계22:2, 14, 19 ㄴ.롬5:21 계20:6 ㄷ.창32:28 ㄹ.계7:4 ㅁ.창1:28 ㅂ.창32:24~27 ㅅ.계3:10 ㅇ.창32:27~28 ㅈ.창32:30 ㅊ.출33:20 ㅋ.출19:24 ㅌ.계15:2 ㅍ.창3:24 ㅎ.단2:37~38, 5:18 요19:11 ㅊ.창27:29

어린양께서 주시는 언약의 피는 ㄱ 부활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이 ㄴ 되신 어린양과 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복이 있고 거룩한 ㄷ 자가 되는 언약의 피여서 이 언약이 야곱이 받은 언약입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받기 전의 이름이오. 인생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거니와 ㄹ 성서는 이 야곱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이십니다 ㅁ.

스스로 계시는 자가 하느님이시오 ㅂ.

창조되지 않고서 계시는 생명이 하느님이신데, 그 하느님의 성호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여호와이십니다 ㅅ.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음이오. 사람이면 자손 대대로 기억하여야 할 하느님의 영원한 표호입니다 ㅇ.

이미 영원한 생명을 생산하신 하느님께서서는 그와 같이 하느님과 대면하여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생산하시는 입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임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린양의 계시에서는 온통 『이기는 자』 들이 받는 복뿐입니다.

진실로 하느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믿는 말씀 때문에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이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의 길이 하느님의 어린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 고통의 아픔이 지나고 날이 새면 그부터는 이스라엘입니다.

어린양과 한 몸을 이룬 것이오.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것은 천하를 소유하는 복과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빛의 아들로 거듭나서 왕과 제사장이 되는 복과 거룩함입니다.

어린양 홀로 그를 믿는 모든 이의 임금이고 그 홀로 먼저(先) 나신(生), 뜻글 그대로 선생(先生)이십니다.

ㄱ. 마26:28 ㄴ. 요일1:1~2 ㄷ. 요일2:25 계20:6 ㄹ. 창4:26, 12:8, 26:25 ㅁ. 창31:11, 46:2 사40:27, 41:8, 14, 43:1, 22, 44:21, 48:12 렘30:10, 46:27, 28, 미2:12 ㅂ. 출3:4 ㅅ. 출3:6, 15, 4:5 ㅇ. 출3:15 ㅆ. 사54:1~8 단2:35 약1:18 계14:4 ㅊ. 창1:1 요1:1 ㅋ. 계2:7, 11, 17 ㅅ. 마23:34, 24:9 요16:1~4, 20~21 계10:9, 12:2 ㅆ. 마10:38 눅14:27 ㅎ. 마24:27~31, 25:5~6 계7:2 ㅈ. 마10:24~25 요13:13 계1:6

선생께서 가르치신 대로 배워서 선생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하느님의 처음 열매입니다.

천부께서 보내신 어린양께서 계시고 그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어린양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결례와 음복의 의례를 행하실 때, 그곳에 있던 열두 제자에게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떡을 먹는 제자 중 하나는 그 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추의 세월을 육신으로 난 유대민족의 열두 지파들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이 땅에서 다스릴 왕들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고 예언하신 율법과 같이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가 독사가 되어서 은전을 받고 발꿈치를 들어 배반하였기 예수의 승천 후에 열한 제자가 되었는데 다른 두 문도 중 하나가 열두 제자의 하나로 제비 뽑혀서 열둘을 채운 것이어서 그 열두 숫자는 이같이 다시 채워져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유대민족의 열두 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아들 중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보다 말굽(발꿈치)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떨어지게 하리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던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중의 하나가 점지를 받아 대신 채워져 있는 열두 지파이어서 장래에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질 참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성서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는 장래 어린양께서 임하시어 다스리실 그의 나라를 입증하시려고 세우신 그 나라의 모형입니다.

ㄱ. 계14:1~5 ㄴ. 요일5:4~5 계17:14 ㄷ. 요13:16~18 ㄹ. 계20:4, 6 ㅁ. 마19:28 눅22:30 ㅂ. 계2:26, 12:5 ㅅ. 창3:15 ㅇ. 마12:34, 23:33 ㅆ. 마26:14~16, 27:3~10 ㅈ. 행1:15~26 ㅋ. 창49:17 ㅅ. 창48:5 ㅆ. 요5:39 히8:5, 9:23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인간의 나라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오시어서 허구많은 단어 중에 하필이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당신이 곧 그 나라의 왕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어린양과 한 무리가 되어서 세상 나라와 싸우는 자들이요, 이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상제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실 때 특이한 예를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그 떡에 복을 주어 축복하셨고 잔을 드시고 그 술에 축사하시어서 예를 하신 것이요ㄴ. 그래서 동방에서 고사(告祀)에 떡과 술을 차려 놓고 제사하면서 신위께 고하는 것을 일컬어서 축(祝)이라 하고 제주를 마시는 것을 일컬어 음복(飲福)이라고 합니다. 신위께 올린 신위의 음식을 아래 식구와 친지가 모두 같이 모여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음복에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양께서 가르쳐주신 참 제사입니다. 하느님 앞에 인생을 위한 제물이 되신ㄷ 어린양의 피와 살을 인생이 음복함으로써 기념하는 것이요, 이를 기념함으로써 형제마다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의 계명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고인의 생일이나 기일과 또 명절에 제사하는 것도 결국은 그 고인을 잊지 않고 기념하려는 것이듯,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하신ㄹ 결례와 음복이 곧 어린양께서 하늘에 계신 대제신위(大帝神位)께 올리신 참 제사에 참여하는ㄹ 인생의 예배입니다.

ㄱ.마13:14~15 막4:13, 33~34 ㄴ.마26:26~27 ㄷ.롬3:25 엡5:2 히9:28 요1서2:2 ㄹ.눅22:19 고전11:24~25 ㄹ.고전10:16~18 ㄷ.계7:9~17

동방에서 제사상의 제물은 형식을 좇아, 두 손 모아 받들어 수복이 케 올립니다. 신위께서 드신다고 하여서 궤도 위로 올려서 담고 실과도 위만 깎아 쌓아 올려서 음복하는 복이 풍성하기를 염원하듯, 복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풍성히ㄱ 내리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도 제 자식을 아끼는 행위는 짐승도 하고 악인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여야 복을 받는다고 하셨듯이 복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 후손으로 임합니다. 모든 복이 위에 계신 하느님으로부터 임하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시며 그 열국의 아비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신 언약의 복은 아담의 후손이 받는 복이 아니요, 하느님의 어린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께서 당신의 후손을 생산하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연원(淵源)을 두어서 갖는 사람의 마음과 정은 형식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베푸는 인심이고 인정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 같이 여겨서 베푸는 인심(人心)이요, 서로 자기네가 차지하려고 종일토록 경쟁하는 삶은 짐승의 자손이 행하는 짐승의 삶입니다. 신명께 고사하면 그 고사 떡을 온 이웃에 나눕니다. 동방의 제례는 율법서의 제례와ㄱ 마찬가지로 모두 참에 대한 모형입니다.

진실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한량없는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듯이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이요ㄴ, 곧 하느님께서 인생에 주신 그의 어린양입니다. 어린양께서 포도주와 떡에 축사하셨듯이 생선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축사하시어서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긴 떡이 열두 바구니였고, 같은 일곱이나 떡만 일곱 덩이로 사천 명에게 나누어 베푸실 때에도 남긴 떡이 일곱 광주리나 되었습니다ㄷ.

어린양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은 그의 양떼가 먹는 풀이요, 남은 양식은 그 풀을 양들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자의 몫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제자가 되어서 받는 복은 이처럼 큰 복입니다.

ㄱ.마10:23, 19:30, 20:16, 24:9 ㄴ.마24:46 ㄷ.눅16:15 ㄹ.마23:8~10 ㅁ.마20:26, 23:11~12 막9:35, 10:43 눅22:26~27 ㅂ.마10:38, 16:24 눅9:23, 14:27 ㅅ.행2:18, 19:6, 고전14:5 계10:11, 11:13 ㅇ.마9:37~38 눅10:2 요4:35~36 ㅈ.마24:21 막13:19 눅21:23 ㅊ.마24:22 막13:20 ㅋ.계7:9 ㅌ.눅11:13 ㅍ.요4:36 ㅎ.행2:14, 21 ㅊ.을2:23 ㅊ.을2:28~32 행2:16~21

성찬식이라며 그 예를 지킨답시고 어디에서 나온 절차인지 알 수 없는 절차들을 거치면서 정작 양식을 차린 것이 은전같이 얇고 조그마한 과자라면, 거지가 양식을 달래도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린양께서 명하신 만찬을 형식화하여서 교인을 한 사람씩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짐승에게 먹이를 주듯 과자를 혀 내밀어 받아먹게 하니, 그리스도의 교훈이 어찌 이토록 변질하였나.

국가와 교단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받아 국법과 교칙의 보호를 받는 성직자가 그의 직종 일을 하는데 누가 그들을 출회(黜會)하고 ㄹ 미워하며 ㅁ 때가 이르면 죽이기까지 ㅂ 핍박하리오.

이제는 인봉하였던 과거와 달리 때가 되어 어린양께서 개봉하신 그의 계시를 ㅅ 전하는 일꾼들이 나오는 때이고 미움과 핍박은 그의 성도이면 반드시 받게 되는 성도들의 환난입니다 ㅈ.

ㄱ.호6:3 ㄴ.마10:22~23, 19:30, 20:16, 24:9, 45~46 요21:22~23 계10:1~3, 11, 11:1~10 ㄷ.행1:8, 4:33, 6:8 ㄹ.요16:2(요12:42 참조) ㅁ.눅1:71, 6:22 요15:19, 17:14 ㅂ.요16:2 계11:10 ㅅ.마13:21 요16:33 행14:22 ㅇ.마24:9 계12:2 ㅈ.계1:1 ㅊ.마24:9 요16:33 계13:15 ㅋ.요16:8 ㅌ.요15:9 계11:10

외식하던 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라고 ㅂ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 후에 보내시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한을 써서 증언하였던 옛 사도들이 모두 핍박을 받았듯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되어서 개봉한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일꾼들도 옛 성도들과 같이 핍박을 받는 동류여서, 때를 따라 옛것과 새것을 내어주는 천국의 서기관을 ㅅ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운 문이라도 넓고 평탄하여서 많은 사람이 다니고 많은 이가 찾아 들어가는 보편적인 문이 있고 험난하여서 찾은 이가 적은 좁은 문이 있습니다 ㅇ.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달라서 한쪽이 다른 쪽을 핍박하여 죽이는 내용으로 ㅅ 시작된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ㄱ 하신 대주제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종들의 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印)을 가지고 해 돋는

ㅁ.요16:2 ㅂ.마23:34 ㅅ.마13:52 ㅇ.마7:13 ㄷ.눅13:24 ㅈ.창4:8 ㄱ.계6:9~11 ㄴ.엡1:13, 4:30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印)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라고 ㄱ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천국을 때를 따라 ㄱ 옛것과 다시 하는 ㄱ 새것으로 증언하는 천국의 증인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봄이면 무화과나무가 순이 돋고 잎사귀를 내듯 ㄷ 검과 흉년과 사망과 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땅의 짐승으로 ㄴ 대재앙이 발발하는 하느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즈음하여 내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순 ㄷ 같은 새 일꾼들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몰살하고 이스라엘은 살아 나왔던 정월 십사 일은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며 지키는 명절입니다.

만인이 죽는 큰 환란의 날 육체가 죽지 않고 구원을 ㄱ 받을 자들이 먹는 생명의 양식은 누룩이 없는 ㄴ 새 양식이오 ㄷ. 외식으로 변질되지 아니한 양식이어서 먹고나면 시련의 고초를 당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일하던 사도들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동방해 돋는 곳에서부터 하느님의 인을 맞는 종들이 일어나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고 그들의 증언이 거꾸로 이스라엘 동리에까지 전파되나 그 전도가 이스라엘 동리에 다 파급되기도 전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ㅂ. 예수께서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저주하셨듯이 겉 모양만 무성하고 정작 필요한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유대교와 같이 사도들이 전하였던 복음이 외식으로 변질하여 죽은 신앙이 되었으나 말일에 임하는 늦은 비로 무화과나무에 ㅅ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ㄹ 그 당대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어서 유월절에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급히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한낱 혁명이 아닙니다. 어둠이 그 막바지에 이르러 해 돋는 데로부터 동이 트듯, 앞으로 땅에서 천 년을 지배할 새 문명이 동트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내려오던 세상 나라의 근본이 뿌리부터 뒤집히는 개혁이오. 아무리 혁명을 하고 개혁을 하여도 해결되지 않았던 사회악이 말끔히 사라지는 개혁(開關)입니다.

자기네의 부요를 위하여 모질게 경쟁하고 투쟁하여서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던 권세가 뒤집혀서 어린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가난한 자가 나라를 얻는 ㄹ 개혁의 서광입니다.

ㄱ.계7:2~4 ㄴ.계6:8 ㄷ.마24:32~34 ㄹ.단2:44, 7:18

상제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ㄴ 친히 만국을 다스리시는 ㄷ 그의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어서 경쟁하며 싸우는 세상이 바뀌어 전연 다른 세상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으레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도 당신의 종들에게만은 그 비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ㄹ 전하신 그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그의 종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에 앞서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ㄹ 그의 종들이 머리를 들고 ㅂ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신(영)은 물건 자르듯 이때니 저때니, 이곳이니 저곳이니 하며 시간과 공간으로 재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간격을 지으신 자의 몸입니다 ㄱ.

성령을 받은 사람 속에 있는 천국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그 영적인 경계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 그 천국은 천자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친히 만국을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그 이루어진 뜻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때와 곳을 초월한 영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상제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도 하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지, 그 뜻을 땅에 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아니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 또한 어린양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장래 나타날 이 세상 임금에게 이미 멸망의 숙명이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생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켜 그리스도시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임금이시라고 답하였던 시몬에게 그 상제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가라사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ㄱ. 요4:24 ㄴ. 계11:17, 19:15, 21:3 ㄷ. 계11:8 ㄹ. 요18:37 ㅁ. 요19:30 ㅂ. 요16:11 ㅅ. 요14:30 ㅇ. 계21:6 ㅈ. 마16:16

성령을 받는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땅에 있으면서도 그의 속은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를 부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를 따르지 못했던 시몬이 성령을 받고는 그의 주를 실제로 따라 십자가에 두 팔을 펴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할 때만 주이신 영적 임금이 아닙니다.

인생이 세상에서 실제 행동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뿐인 임금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주시어, 세상의 죄를 지시려고 오셨던 하느님의 독생자 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바, 구세주(救世主)이십니다.

멸망하고 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어린양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의 적이 되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의 종들을 처형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정죄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래 세상의 권세를 쥔 붉은 용과 일곱 머리를 가진 붉은 짐승과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정죄를 받아 멸망함으로써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을 쥔 그들의 권세라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권세가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쟁취하는 권세이고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살인하는 무력의 권세이며 하느님께서 지으신 천지를 더럽히고 파괴하여서 저주를 불러들이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무너짐으로써, 그 권세에 짓밟혀서 인생이 울고 만물이 탄식하던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ㄱ. 마16:19 ㄴ. 마18:18 요20:22~23 ㄷ. 마11:12 ㄹ. 마26:75 ㅁ. 마16:22~26 ㅂ. 마5:35, 21:5, 23:10 ㅅ. 요3:16, 1:29 ㅈ. 요3:17 ㅊ. 사60:12 단2:44 요16:11 계16:19, 18:3, 19:15 ㅋ. 눅4:5~6 계13:4, 20:2~3 ㅌ. 요12:31, 48, 16:11 계13:7~8 ㅍ. 계17:18, 19:2 ㅎ. 창3:1~5 요8:44 ㅊ. 마26:47~55 요19:1~3, 23 계13:10 ㅌ. 창3:17, 4:11 ㄱ. 계7:17, 21:4 ㅋ. 롬8:22



천하 만국이 그 붉은 세력에 예속하여 있습니다.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세상 나라에 오셔서 하느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자체가 세상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멸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이 지나가면 명일이 오고 이해가 지나가면 명년이 오듯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는』 나라가 이르러서 명천의 새 세상이 됩니다.

창세 전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독생자께서 만인이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시어 세상에 계시다가 육신이 부활하시고 육신으로 승천하셨으며 그와 같이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는 육체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친히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제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으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또 승천하시려고 다니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는 하늘에 속한 뜻이 하느님의 첫째 날에 탄생하시어 그 뜻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어진 것이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시어서 사망을 이기셨기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육신으로 임하실 임금을 놓고 기독교는 신학이랍시고 신성이니 인성이니 따지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서로 다르지 않은 일체(一體)라고 정의하여서 독생자의 거룩하신 몸을 영적 존재로 결론 지었기 외식의 종교로 변질하였습니다.

실제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임금을 섬기면서 눈감고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임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씨 자체가 하느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왕 노릇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ㄱ. 계13:3~8, 17:18, 19:2 ㄴ. 계11:15 ㄷ. 마19:28, 26:29 계21:5 ㄹ. 행1:11, 계1:7 ㅅ. 요1:2 고전8:6 ㅇ. 요1:14 요1서1:1 ㅈ. 계1:5, 5:10 ㅊ. 계17:14, 19:16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요,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일 뿐입니다.

순교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주는 형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그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를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면 순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관원(官員)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라고 하여서 권세에 복종하고 국법대로 세금을 낼 것을 권고하였지만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권원에게 끌려가 처형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길과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길이 상충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사상이 다르면 처형을 받습니다. 바울과는 달리, 우리의 임금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온통 『두려워 말라』 고 하시느라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지신 주를 따르지 못하고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는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동자(童子)의 혼령이 실렸다고 하여서 동자의 행동을 하는 무당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실리면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 합니다.

천자께서 당신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친구라는 □ 동격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천자께서 언약하신 날이 이르면 부활하신 천자와 같이 되어 ▽ 천부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 왕 노릇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ㄱ. 마23:10 딤후2:5 ㄴ. 롬13:3 ㄷ. 눅12:4 요16:33 ㄹ. 신1:29, 3:22, 7:21, 20:3 사10:24, 35:4, 41:10~14, 44:2, 8, 51:7 ㅁ. 요15:13~14 ㅂ. 눅6:40 고후3:18 빌3:21 요1서3:2 ㅅ. 요16:27 ㅇ. 계3:21, 20:4, 6

믿음이니 사랑이니 하는 어린양의 말씀이 모두 마음의 법이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골백번 설득하여도 마음에 믿어주어야 믿음이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하느님의 영이 임하시어 마음이 하느님의 어린양과 하나가 되는 것이 ㄱ 관건입니다.

속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지키는 것은 외식이 됩니다.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계명을 성령으로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ㄴ.

동녘에 해가 솟기 전, 꼭두새벽에 하느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진리의 신이 임하시어서 ㄷ,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ㄹ. 어린양의 영을 받은 어린양의 여자입니다 ㅁ.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하느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언 때문에 핍박을 받는 여자입니다.

과거에 오셨던 어린양을 증언하던 사도들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방으로 전도되었으나 말일에 장차 오실 어린양을 증언하는 예언은 해 돋는 데서부터 ▽ 열립니다.

진리의 신을 받아 목숨을 무릅쓰고 온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밝힘으로써 새 세상의 문명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서방에 전도하였던 바울이 이르기를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ㅅ 예언하였듯이 그때가 된 것이어서 오시는 상제에 앞서 진리를 햇빛같이 밝히는 촛대가 ◊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양께서 보내시는 종들이 다시 하는 증언으로 세상에 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기존의 붉은 옷을 입은 여자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서, 일찍이 하느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탓에 목 베임을 당하였던 자들같이 그들 또한 같은 길을 걷는 동무입니다 ㅅ.

ㄱ. 요17:11, 21~22 요1서1:3, 3:24, 5:20 ㄴ. 마5:17 롬13:8 히7:11, 10:1 ㄷ. 요엘 2:28 ㄹ. 계12:1 ㅁ. 마25:10 계21:9 ㅂ. 계7:2 ㅅ. 고전13:12 베후1:19 ㅇ. 스후4:14 계11:4 ㅈ. 사54:7~8 단12:7 계6:9~11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걷는 것은 어린양의 열두 사도들같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어린양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영을 받았기 세상의 권세가 주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수로 이루어진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 손에 받은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하느님의 인(印)을 치시는 것은 당신께서 점지하신 당신의 남녀 종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으신 하느님의 일곱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떠나 인간의 성(城)을 쌓고 사는 가인의 종자와 일곱째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어린양의 종자로 나뉘는 것이요. 이는 그 어린양의 신부들이 신랑을 위한 사랑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여섯째 날의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 일곱째 날과 같은 거룩한 몸을 입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일곱 영은 하느님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 첫째 날은 천자께서 천부의 품 속에 계신 날이고 일곱째 날은 천부께서 천자 안에 안식하신 날이요.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오행의 빛이 겹쳐서 하느님의 영을 일곱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몸을 형용하신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가운데 하나와 좌우의 세 빛으로 모두 일곱 빛을 가진 금 촛대의 모형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으신 하느님의 영을 형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당신을 계시하실 때면 으레 구름이라고 일컫는 생물들을 붙여서 좌우 생물 사이에 계신 자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은 양과 음으로 나뉘어진 둘이 아니라 양이 음 안에 있고 음이 양 안에 있어서 하나이신님이 시어서 이를 형용하시려고 좌우 영물을 대동하시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영물의 모양이 지상의 생물들의 모양인 것은 지상에서 날고 기는 생물들의 기운이 곧 하느님께 예속된 기운이어서 하느님께서 그 기운을 거두시면 그 지상의 생물은 더는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성서에 하느님의 낙원에 있었어도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아담을 일컬으시어서 구름이라고 가르쳐 주셨듯이 공중에 나는 참새의 생명도 하느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도 하느님께 붙어 있는 것이어서 그 하느님 홀로 인생의 주인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은 이미 하느님께서 천지를 개벽하시어서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다시 땅에서 사람을 취하시어서 무생물과 생물이 나뉘어 생긴 것이어서 예언서와 천자의 계시에 그 영물들의 수가 넷입니다. 사상(四象)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일곱 영으로 종들의 이마에 치시는 하느님의 인은 치시는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기름은 이 곧 하느님께서 온 땅에 보내시는

하느님께서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죽이시던 때,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하고 그 양의 살을 먹었던 자들은 살아남았던 날을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요.

그 유월절의 어린양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피로써 죄를 씻은 자들을 그 환난에서 빼내시어서 새 세상을 맞게 하시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유월이요.

창세이래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만인이 죽는 여호와의 밤에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고 하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요. 하느님께서 영이시니 당신의 씨를 영으로 생산하시는 것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영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구속을 받아 영생하는 몸으로 거듭 나야 비로소 하느님의 흠이 없는 아들들입니다.

땅에서 구속을 받습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되는 피를 땅이 입을 벌려 받았은즉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것이요. 그것이 상제께서 언약하신 마지막 날의 구속입니다.

땅의 티끌에서 가운데서 자는 자 중 깨어 영생을 얻는 부활입니다.

하느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당신의 기적을 자랑하시려고 그 유월절을 자손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이 그러한 하느님의 기적으로 구출 받아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도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던 그 구원이 하느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음력 정월 이 칠의 십사일 밤,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을 넘겼던 일을 기념함으로써 장래에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언약을 간직하도록 하신 것이어서 그 유월은 하느님께서 이루실 당신의 영원한 언약의 모형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명절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서구의 사조가 엄습하기 전까지도 동방의 땅 끝에서조차 연사 중에서 가장 많은 행사들을 벌려서 지켜왔던 명절이 정월 십사일 곧 대보름 전야의 행사였습니다.



집집마다 부림을 깨뜨리는 것도 간혀 있던 어두움을 깨뜨리는 행사이고 쥐불놀이나 달집 치기를 하여 불빛을 내는 것도 세상을 환하게 밝히실 생명의 빛을 상징하여서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을 비는 행사입니다. 유월하는 것을 상징하여서 다리 밟기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으로써 액을 막았듯이 염병을 넘기고 살아남기를 바라거나 액운을 탄 자들을 위하여 짚이나 풀을 베어 제웅을 만들고 그 제웅 속에 돈을 넣어 유월하는 다리 밑이나 통과하는 길가에 버려서 액운을 제웅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월 열 나흘에 있었던 그 유월의 밤을 일컬어 하느님의 밤이라고 하셨습니다(출12:42). 이 칠의 어린 양께서 버림을 받아 홀리신 피로써 당신의 백성의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인생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듯이 아이들이 오곡에 나물을 먹고 쥐불 놀이를 하고 또 집집을 돌며 제웅을 받아서 그 제웅을 까 돈을 빼내어 갖고 제웅은 길가나 다리 밑에 버려서 제웅치기를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년사 중 가장 흉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은 하느님의 씨라는 뜻입니다. 정월 열 나흘 날 밤을 죽지 않고 넘겨야 비로소 휘영청 밝은 대보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빛을 형용하여 환하다고 말하듯 하느님을 일컬어 환인이라고 하고 그의 아들을 환웅이라고 하였듯이 인생을 위하여 제물이 되신 흠 없는 어린 수양은 인생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서 당신의 피로써 인생을 사신 제웅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의 액이 저에게로 가고 저의 흠이 없는 무죄가 우리에게로 교환되는 것이어서 정월 열 나흘 날은 앞으로 있을 더위까지도 파는 날입니다.

는 것이리는 전연 하여서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후, 그 교단의 황명(皇命)에 의해 다국적 연합군이 신의 평화운동이라는 구호 아래 결성되었습니다. 살육하기 위해 창칼을 든 군사의 휘장과 방패 등에 십자가를 그 군대의 표식으로 붙인 십자군이니 그 십자가는 스스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쳐서 죽이려고 못을 박아 매어 다는 로마의 십자가입니다. 근동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서유럽에서부터 출정하였으니 십자가의 표식을 가슴에 붙이고 약탈과 겁탈과 학살을 자행하면서 그 기나긴 원정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 성에 거주하여 오던 유대인과 이슬람의 교인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학살하였고 그 유대교인과 무슬림의 예배하는 처소들을 불사르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그들의 교회당을 세웠으니 동서양 대륙 간의 인종과 종교의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후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였는데, 회교도들은 십자군과는 달리 기독교의 순례자들을 위하여 그 십자군이 세운 교회당을 문지기를 세우고 지키게 하여서 그 교회당이 오늘 날까지도 그 문지기의 후손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속담에 여덟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만 십자군은 팔 구회나 대륙을 넘는 원정을 거듭하면서 장장 일 세기를 넘어 이 세기에 걸쳐 전쟁을 계속했어야 할 정도로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나 끝내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정복자의 육체를 신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던 헬라와 로마의 전통에 뿌리를 둔 이념으로서는, 남의 나라를 침공하여 노략한 전리품과 사로잡은 백성을 자신의 군졸과 노예로 만들어 이끌고 환향하는 장수가 그들의 실질적인 신인 것이어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어 죽이면 죽일수록 그들에게는 위인이고 영웅입니다. 장정들이 별거벗고 경쟁과 격투를 벌여서 신을 찬양하던 그리스의 체전(體典)을 이어 받아 광대한 원형 극장을 짓고 짐승들이나 별거벗긴 노예들을 강제로 격전을 붙여 놓고 치고 꺾고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하면 열광하며 환호하는 야생적 본능의 낙으로 살던 시민들이었으니, 이 같은 우상숭배가 원인이 되어 그리스와 로마의 상류층은 신상과 같은 육체를 사모하여 동남의 종과 탐색하는 자가 범람하고 그 시민들조차 자신의 갖난 친자식이라도 육체가 건장하지 못하면 유기하여 버릴 수 있을 만큼 잔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만을 위해 만들어진 십자군이건만 오랫동안의 실전에서 그 당시의 서구와는 전연 다른 사고방식의 장에 막혀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 사고방식이 다름 아닌 동양의 희생정신입니다.

상대를 쳐 죽이고 희생시킨 영웅이 아니라 반대로 의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한 자들을 숭상하는 전연 다른 사상입니다. 같은 대상을 놓고도 말이 서로 달라, 십자군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테러리스트이나 그 상대편의 입장에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된 의사(義士)요 열사입니다.

무장을 철통 같이 한 십자군은 실전에서 이기고 나면 음주와 겁탈로 축제를 벌리며 내분하여 전리의 이권 다툼을 벌리건만 상대 쪽은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전사하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알고 몸을 던지는 자들이 속출했기 전쟁이 마냥 길어지면서 정복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ㄱ.요2:19~21, 4:21 ㄴ.눅17:21 고전3:16 고후6:16 벰전2:5 계3:12, 21:9~14 ㄷ.창4:1~5 ㄹ.롬1:11, 고전2:13, 14:1, 12 벰전2:2 ㅁ.마12:39 ㅂ.살후2:9 ㅅ.요일4:1 ㅇ.막16:20 요5:36 행2:22, 43, 5:12 ㅈ.마7:22, 24:24 계13:11~14

덩어리가 나타나면 그 덩어리의 위력 앞에 덩어리를 이루지 못한 개체는 더 이상 개체로서의 자주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고 그 덩어리에 복종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대한 십 개국을 대표하는 통치권자들이 그 대표자들의 대표를 뽑아 그에게 권한을 주어 독재의 통수권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 공화국의 체제가 필연이 다다른 종착지입니다.

각국의 원수가 그들의 통수권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는 나라 간에 자국의 이권을 위해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강국의 정상들이 한 덩어리를 결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국의 정상들이 공식적으로 그 정상들의 정상을 세우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뭉친 것이 아니라도 세계적 권세를 가진 자들의 궤계를 통하여 그 방향으로 세계가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대 국에 낄 만큼 크지 아니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고대엔 있었으나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는 사라져 있다가 그 후 다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비상한 선전으로 온 세계에 큰 열풍을 일으키는 한 당(黨)의 당수가 일어나 그의 나라뿐 아니라 그 십대국 중 삼 개국이 이 당에 함몰됨으로써 그 덩어리 전체의 최고 실권자로 부상하고, 그 다국적 집권 세력이 소생의 가망이 없는 전쟁의 상처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함으로써 결국 온 세계가 그를 경탄하여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ㄱ.계17:12~13 ㄴ.시38:12 ㄷ.계17:8 ㄹ.단7:20, 24

이것은 대공황으로 세계 시장이 붕괴되면서 세계의 도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란으로 입는 상처이고 그 당은 이를 극복하고 우뚝 서서 인류를 향하여 찬란한 희망을 제시하며 인류를 위한 인류의 대 단결을 내세워서 인류의 마음을 사로 잡습니다.

세계가 온통 그의 연설에 호응하는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그의 비상한 언변이 그 어떤 궤획이라 하여도 일단 국민들이 그에 환호하는 대세 속에서는 그 어떤 나라라도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상에 어느 군주가 무력으로 세워져서 무력으로 지켜지는 그의 나라를 싸우지도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가 있겠소만, 그는 전사가 아닌 평안한 때 궤계와 궤획로 만인을 미혹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인물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 제국의 상징물을 세워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로 하여금 그 신상에 경배하도록 한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위하여 인간이 만들고 이룩한 것을 신성시하여 찬양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성서는 그 세워질 상징을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요, 천지와 인간을 지으신 만유의 소유주를 이렇게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계 만민이 속는 줄 안다면 그것은 이미 미혹이 아닙니다. 오직 성서만이 이를 미혹이라고 하시는 것이요. 종교인들까지 앞장 서서 그들의 이 민주의 사상에 도취하여 온 천하 만민을 이 거대한 공화의 질서체제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ㄱ.마23:9 ㄴ.마28:18 ㄷ.요일2:18 살후2:3 ㄹ.마24:15 단11:31 ㅁ.단3:1~7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 일 점, 일 획 하나라도 사람이 보태고 빼어내 변경될 수 없는 ㅅ 철칙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또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이

ㄱ.창3:15 ㄴ.계2:6, 20 ㄷ.계14:8, 17:2, 18:3 ㄹ.계17:16 ㅁ.계17:8 ㅂ.시24:8, 사11:2, 28:29, 46:11 ㅅ.마5:18~19 계22:18~19

러한 것일 것이라느니, 이러한 의미일 수 있다느니, 이렇게 생각한다느니 하는 설교가 웬 말이오. 자기의 생각이면 사람의 말이지 어찌 하느님의 말씀이오.

이 학설, 저 학설, 그 여러 설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군은 설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태고 감해서 왜곡되지 아니한, 그대로의 순수한 ㄱ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전능하신 주를 믿고 경외하는 자는 ㄴ 그의 주께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의 털끝조차도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책입니다.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고 또 서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서 ㄷ 그 짝들이 서로 일맥상통하여 들어맞는 것이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확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확연하게 뜻이 드러나더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진리는 오직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ㄹ 마음 속에 밝혀지는 것이어서 진리에서 있는 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의 신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제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어서 깨어나 등을 밝혀야 하는 때입니다 ㅁ.

스스로 그리스도의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충신(忠信)이고 진실이나, 아니면 세상의 권세와 상부상조하여서 힘들고 험한 길을 피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안정된 삶과 명예를 추구하느냐로 확연히 나뉠 때가 되었습니다.

충신(忠臣)은 역적이 실권을 장악했을 때 알 수 있고 효자는 그

ㄱ.시12:6 ㄴ.창22:12 계15:4 ㄷ.사34:16 ㄹ.요14:26, 15:26 ㅁ.마25:6

부모가, 열녀는 그 남편이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에나 알 수 있듯, 충성된 믿음과 진실은 역경과 박해 속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충성된 일군들은 온 세상이 미워하여서 박해를 받는 좁고 험난한 길에 들어서서 끝까지 굴하지 않는 인내로 ㄱ 승리하는 일군들입니다.

믿음이 충신이고 진실이어서 그 때문에 받는 고통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을 ㄴ 받는 선생이 되지 않고 이 땅에 곧 세워질 천국의 증인이 되면 그 증거의 소리로 인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을 인내로 넘어서야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인내로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신천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어서 『나중까지 건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신 것입니다.

말일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증인들의 소리는 곧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을 받고 성전을 척량할 때 쓰는 다림줄을 손에 잡은 스톱바벨의 역사(役事)입니다.

『또 내(요한)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시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양분되는 것입니다.

둘로 쌓아 건축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말씀하신 것이요,

여름이 가까워 오면 마른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

ㄱ. 눅8:15, 21:19 약1:3~4 계3:10, 14:12 ㄴ. 겔34:10 요10:12 ㄷ. 계3:10 ㄹ. 마10:22 막13:13 ㅁ. 에스5:2, 5:2 학1:14, 2:1~9 ㅂ. 슄4:6~10 ㅅ. 계11:1~2 ㅇ. 요4:23~24

듯,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양분은 이 같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교훈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그 이외의 자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스톱바벨과 마찬가지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을 가리키사 가라사대 『이들은 예표(豫表)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筭)을 나게 하리라』 하시고서 하느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 그 미래에 관한 말씀과 함께 그 날이 이르러야 비로소 하느님의 백성들이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는 태평의 천하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옛 히브리 백성의 족장들이 목적했던 약속의 땅을 바로 눈 앞에 두고서 그 땅의 기존 세력과 싸우기를 두려워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느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싸울 군대가 되기를 원하였었는데, 하느님께서 그 세대의 그 같은 불신을 노하시어 모든 이가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쇠망하게 하셨으며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침노하게 되었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을 받은 여호수와 스톱바벨은 약속의 땅을 눈 앞에 두고 하느님의 군대가 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일을 하는 일군들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모형과 예표대로, 하느님의 언약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성사되는 하느님의 날에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두 증인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이요, 이같이 말세에 다시 세워지는 교회는 이전 세대와는 상관이 없는 새 교회들입니다.

드디어 이 땅에 세워지는 언약의 나라가 눈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받아 먹고 예언하는 그 작은 책은 그리스도께서

ㄱ. 마3:9 눅19:9 요8:39~47 롬2:29 ㄴ. 요4:23 계22:10~11 ㄷ. 슄3:8 ㄹ. 슄3:9~10 ㅁ. 민13:1~14:25 ㅂ. 마11:12 ㅅ. 계11:3 ㅇ. 계11:4 슄4:12~14 ㅈ. 계10:2, 9~10

그의 종들을 위하여 주신 계시의 글이요, 그 계시는 이와 저로 양분하시는 심판의 말씀이어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글이 저주의 글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느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는 흥망성쇠를 거둬하지 아니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복음이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달게 먹었어도 먹어서 배 속에 들어가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쓴 나물과 같이 먹는 것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황급하게 무교병을 먹는 것이요,

급자기 닥치는 급사 병이 유행했던 그 날에 하느님의 군대는 커녕 이스라엘 회중에는 한 사람의 군병조차 없었거늘, 그 무교절을 일컬어 하느님의 군대를 빼내시는 날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군대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성서에 백마와 그 백마를 탄 군대로 계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군대입니다. 백마를 탄 자뿐 아니라 그 백마가 공의로 싸우는 충신과 진실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백마가 먼저 전쟁과 기근과 괴질의 다른 색을 가진 말들과 함께 온 세상을 횡행하여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백마와 그 탄 자들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과 같이 바벨에서 빠져 나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 한 하느님의 군대로서 세상에 속한 권세와 전쟁을 하는 군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군대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성서에 당신을 일컬으실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듭거듭 밝히신 『만군(萬軍)의 여호와』 이십니다.

하느님의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군대가 아닙니다.

ㄱ. 계1:1, 22:7 ㄴ. 단12:10 계22:11 ㄷ. 단4:3, 34, 7:14, 27 ㄹ. 계14:6, 22:7 ㅁ. 계10:10 ㅂ. 출12:8 ㅅ. 출12:11 ㅇ. 출7:4, 12:17, 12:41, 51 ㅈ. 계17:4 ㅊ. 계11:7, 16:14, 19:19 ㅋ. 시편24:10, 48:8, 59:5, 84:8 ㅌ. 요18:36 계13:10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군대입니다. 천만인이 죽는 그 와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이 세상의 권세와 전쟁하는, 적그리스도의 적군들입니다.

말세의 증인들은 이후로 전개되는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것이어서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이제까지 장구하게 기독교가 가르쳐 온 설교가 아니라 왕국이 임할 그 때가 결국 도래하였기 황급히 온 세상에 다시 하는 예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초월하여 땅과 바다의 온 세상에 우리와 같이 울려 퍼지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기존의 기독교가 말세에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 주고 있다면,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에게 유독 두 가지의 이름을 주시었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어서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때의 일군들을 상징하는 제자이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요한의 두 형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의 다시 예언하는 일군들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같은 제자이건만 그 게바(반석)에게 가라사대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요한을 가리키시며 『내가 올 때까지 그(요한)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늘어서는 결국 당신을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직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을 보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 질문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것이어서 모든 제자들은 요한은 주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으로 오해를 하였으나, 그

ㄱ. 계1:1 ㄴ. 계10:11 ㄷ. 계10:2~3 ㄹ. 마24:45 눅12:42 ㅁ. 마16:18 ㅂ. 요1:42 ㅅ. 막3:17 ㅇ. 요21:22 ㅈ. 요21:18 ㅊ. 요21:21

당사자인 요한 자신은 그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의 하신 말씀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재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입니다. 말세의 일군들의 신앙입니다. 천지를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그 독생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사람이 함부로 추측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만 새겨 듣는 신앙이어서, 그가 들은 대로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쓴 책이 요한의 복음서이고 주의 말씀 그대로 요한은 다 같이한 아버지와 한 목자를 가진 형제 사이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였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목자의 부림을 받는 사도(使徒)가 되어서 그 목자의 어린 양에게 꼴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의 주인이 목자인 것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고 이르신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목자이실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목숨을 바쳐서 주를 모시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나, 주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고 하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주의 같은 일군들이건만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일군과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군이 서로 상관이 없을 만큼 사명이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의 일군들이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하느님의 아들께서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입니다.

이처럼 그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네 복음서에 기초를 둔 것이어서 모두 같은 복음이어도 이

ㄱ. 요21:23 ㄴ. 요1:18 ㄷ. 요일2:27 ㄹ. 요21:15~17 ㅁ. 마23:10 ㅂ. 요10:16

후에 마땅히 이루어질 그 예언의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의 신도들은 만인이 죽는 대 환난 ㄱ 중에서 그 육신이 살아남는 육신의 구원과 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승천 이래, 사도 요한이 받은 그리스도의 예언의 계시는 일군들이 밝히 전파하는 복음이 ㄷ 되지 못하고 땅과 바다에 큰 소리로 울려 퍼져야 할 그 우레의 소리는 인봉되어서 ㄹ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게 된 것이나 드디어 주께서 그 인봉을 떼어 내셨습니다.

심판 때에 종교를 초월하여 온 천하로부터 알곡을 모으는 ㅂ 일군들의 소리입니다.

기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씨를 뿌렸던 것은 아름다운 행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었던 ㅅ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에 당신께서 구하시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자 저주하셨습니다.

스스로가 희생하는 그 선행은 ㅈ 하지 않고 종교적 의식으로만 일관 했던 종교인들을 저주하셨던 그리스도 이시니 그와 같이 주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라도 열매가 없으면 말라 죽고 말 것을 그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앙상하게 말라 버린 나무라도 말일의 늦은 비가 내리면 새 순들이 ㅊ 돌아 나는 것이요, 말일에 하느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하느님의 신을 내려 받고 ㅋ, 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또다시 그들의 주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일군들이 우후죽순 같이 돌아 나는 것입니다.

ㄱ. 마24:21 ㄴ. 계7:24 ㄷ. 마24:22 ㄸ. 계14:6, 22:7 ㄹ. 단12:4, 9 ㅁ. 계10:4 ㅂ. 계22:10 ㅃ. 마9:38~39 ㅄ. 마3:8, 7:16~18 ㅅ. 요15:2, 5~6 ㅆ. 마21:18~19 ㅈ. 막11:12~21 ㅊ. 마7:19~21, 25:41~45 ㅋ. 속3:8, 6:

가라사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ㄱ 하셨습니다.

본래 반석(돌)이 그리스도를 지칭하시는 말씀이건만 ㄴ 그 이름을 당신의 제자에게도 주시어서 ㄷ 돌이 태산을 이루듯 ㄹ 순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 순으로 ㄱ 나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의 교회가 말일에 나오는 당신과 같은 새 순(가지)들로 ㄴ 말미암아 재건되는 것이요, 그 가지에서 기름이 ㄷ 나는 것이어서 감람나무라고 하신 것이고 말일에 등을 밝히는 교회여서 ㄹ 촛대라고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셔서 지시하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ㄷ 받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ㄷ 그리스도의 종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들이 곧 감람나무이고 촛대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받아 먹고 다시 예언하는 그 작은 책은 제앙들이 내려지는 나팔을 든 천사가 ㄱ 아니라 다른 천사가 들고 있는 책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고 계시하신 ㄷ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만민이 제앙으로 죽는 그 때에 도리어 사는 생명의 말씀 ㄷ

ㄱ. 마24:32~35 ㄴ. 마7:24 행4:11 롬9:33 고전10:4 벰전2:4~8 ㄷ. 마16:19, 계2:17 ㄹ. 단2:35 ㅁ. 사11:1, 10 ㅂ. 스후3:8 계11:4 ㅅ. 마25:4 고후1:21 요일2:20 ㅇ. 계1:20 ㅈ. 계1:1 ㅊ. 계10:11 ㅋ. 계8:1 ㅌ. 계10:1~3 ㅍ. 계22:7, 19

입니다. 이제까지는 성서의 예언들이 희미하였으나 ㄱ 성서의 비밀스러운 모든 진리가 햇빛 같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요.

그 예언이 땅과 바다의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때부터 주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는 한 세대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ㄴ.

성전을 재건하는 새 순들이 나서,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나면 바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그 예언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당대에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나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고 하셨습니다 ㄷ.

진리와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형제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까지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죽는데 넘기는 쪽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쪽으로 양분되는 그 장차입니다. 장차라고 말씀하신 그 때에 받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구원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죽는 환난에 살아 남는 구원인 ㄷ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전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 강권(強勸)으로 ㄱ 이끌려서 초청 받는 하느님의 새 일입니다.

마치 비빔밥 같이 유대교인도 끌려오고 회교도도 끌려오며 힌두와 불자들과 유학자도 끌려와서 이미 참석한 자들과 모두 같이 하늘로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기왕에 천국복음을 듣고 이미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자들은 ㄱ 세상에 마음이 가 있어서 이 세상의 권세의 등을 등을 타고 있는 그 큰 성(城)에서 나오지를 앓기 때문입니다.

ㄱ. 고전13:12 ㄴ. 마24:34 ㄷ. 마10:21~23 ㄹ. 사43:1~7 ㅁ. 눅14:23~24

롯의 처는 몸 담고 있었던 멸망의 성을 탈출하면서, 그 성을 뒤도 돌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 보았다가 그 몸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였습니다 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그 큰 성이 사치한 음녀의 성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롯과 같은 하느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나 말세에 하늘로서 나는 큰 음성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 ㄴ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 성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고 ㄷ 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치와 음란으로 부패한 도시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문명에 빠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이 세상의 삶이요, 세상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한 시 바빠 빠져 나와 그리스도의 시온의 성으로 도망하여서야 말세에 그 목숨을 보존하고 신천지를 맞이할 주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ㄱ.창19:26 ㄴ.계18:4 ㄷ.계11:8

